

2006 아름다운재단 사업 보고서
나눔가계부

2005 11 - 2006 10

힘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프롤로그 아름다운재단이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재단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의 빈곤함과 소외됨을 외면한 채
내 풍족함을 위해 버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을 위해 탐욕과 거짓,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희생되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 사회는 병들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풍요롭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의 어느 한 편에만 흘러 넘치는 풍요로움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낙오한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낙오한 사람에게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가 정의롭게 풍요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조금씩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버는 것은 돈이지만, 나누는 것은 마음입니다. 버는 데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게 돈쓰는 사회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세상에서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나눔가계부를 펴내며	004
2.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2006	007
3. 아름다운재단 2006년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014
1) 기획영역 1_ 희망의 변화에 힘을 더하는 사업	016
2) 기획영역 2_ 희망을 일구는 사람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024
3) 기획영역 3_ 우리사회 이슈가 되는 테마를 지원하는 사업	030
4) 기획영역 4_ 시민과 공익을 잇는 온라인 복덕방 사업	038
5) 기획영역 5_ 공익변호사 지원·파견 사업	046
6) 가난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 : 아동, 청소년 영역	050
7) 내일의 주인공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교육영역	058
8) 세 겹의 그늘 아래 여성가장 지원 사업 : 여성영역	064
9) 몸의 장애와 삶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 : 장애영역	070
10)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지원하는 사업 : 노인영역	074
11) 가난과 건강의 악한 고리를 끊는 지원사업 : 의료 영역	078
1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재해구호 지원사업 : 재해구호영역	082
13) 문화 복지지원 사업 : 문화영역	086
14) 나눔교육 지원사업 : 나눔교육	090
15) 모금노하우 지원 사업 : 해외모금전문가 초청 모금워크숍	094



4. 2006년 함께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재단 사업 이야기	099
1) 청계천 "팔석담 희망 나눔" 행사	100
2) 광주 처음자리 마음자리	102
3) 나눔의 가게 터줏대감들, 수락산에 오르다!	104
4)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총괄 상임이사 막사이사이상 수상	106
5)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 희망가게 10호점 잔치	108
6) 뉴욕 아름다운재단 출범	109
7) 콩반쪽도 나누는 미담 잡지 '콩반쪽' 한살됐어요	110
8) 세 번째 아름다운콘서트	110
9) 나눔의 200승	111
10) 기빙코리아 2006, 나눔의 세대를 키운다	112
5. 기금 소개와 기금별 회계자료	113
6. 한 해를 보내며	119
7. 아름다운재단을 함께 이끄는 기부자 명단	121

* 아름다운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인권과 신상보호를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06년 첫마음으로 다시 뛰는 아름다운재단

2000년 8월 22일 창립, 올해로 설립 6주년을 맞은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을 위한, 시민공익재단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과 풍요로운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과 공익활동을 하는 풀뿌리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한 해

아름다운재단은 지나온 6년간의 사업을 정비하고 내부 조직을 새롭게 해서 2006년 새로운 2기 사업을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임 윤정숙 상임이사님이 2006년 1월 1일자로 취임하셔서 한 해를 함께 뛰었습니다.

한국 여성계 및 시민사회에서 합리성과 리더십을 고루 갖춘 신망 있는 리더로 알려진 윤정숙 상임이사님은 '여성민우회'에서 15년간 헌신적으로 일하며 여성 권의 향상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 설립 초기부터 배분위원직을 수행해와 재단 사업을 익히 접해 시민사회 및 비영리공익단체와 아름다운재단 간 오피니언 리더로서 가교역할을 해왔습니다. 2006년은 내부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장기적 전망에서의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을 고민하는 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듯, 아름다운재단의 더 아름다운 활동을 위한 소중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그러한 와중에서도 아름다운재단은 그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작년보다 2.5배나 많아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8백 여단체에 4만5천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원사업을 즐기치게 진행하는 가운데, 미숙아 지원사업이나 저소득층의 단전문제에 대한 정부제도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단지 수치적 측면이 아닌, 작은 돈이라도 그 쓰임새가 값진 사업을 위하여, 진정 우리사회 아름답게 돈 쓰기를 위하여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온 5년간의 성장을 체계화하고 내실을 기하며 새로운 도약을 기합니다.

언제나 기부자 여러분과 함께 '첫 마음으로 다시 뛰는 아름다운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한 해간의 걸어온 길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2006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영역별 지원사업 소개

배분사업영역	지원사업	영역내 기금
기획지원	기획영역 1 _ 희망의 변화에 힘을 더하는 사업	1% 기금
		아우디과트로그금
		마중물기금
	기획영역 2 _ 희망을 일구는 사람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공익제보자기금
		공익출판기금
		심산활동가기금
		국제NGO연대기금
		내일을위한기금
		의인기금
		멸치한상자기금
		소금창고기금
		신한의인후원기금
		kb국민은행희망기금
	kt플뿌리단체정보화지원기금	
	기획영역 3 _ 우리사회 이슈가 되는 테마를 지원하는 사업	등불기금
		빛한줄기나눔기금
		더불어숨기금
		우토로살리기희망기금
		햇살고운집만들기기금
		SOS기금
기획영역 4 _ 시민과 공익을 잇는 온라인 복덕방 사업	해피빈기금	
	해피빈서비스사업기금	
	나눔복덕방기금	
기획영역 5 _ 공익변호사 지원·파견 사업	공익변호사기금	
아동·청소년	소외아동과 청소년을 복지지원, 문화체험 및 방과후 활동 지원	길위의희망찾기
		샐터파랑새기금
		소원우체통기금
		솔기금
		신한저주금융회사기금
		Big자기금
		신기한나라만들기기금
		오필승코리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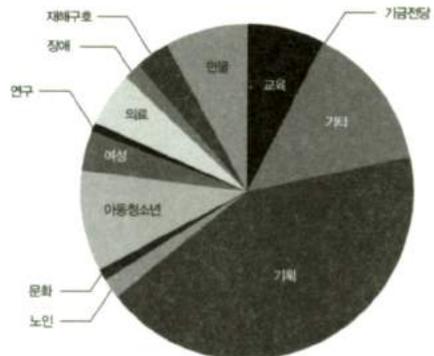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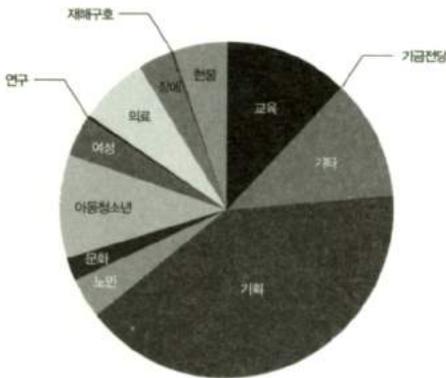
아동·청소년		<p>푸른세상을여는기금</p> <p>한국의대니서만들기금</p> <p>함께가는희망여행기금</p> <p>행복보급자리기금</p> <p>휴머스기금</p>
교육지원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가정 자녀, 근로학생, 보육시설 퇴소 대학생 교육비 지원	<p>김군자할머니기금</p> <p>꿈틀기금</p> <p>대덕테크로벨리기금</p> <p>렉서스꿈더하기기금</p> <p>론스타푸른별기금</p> <p>메가스타디기금</p> <p>아름드리기금</p> <p>함께하는기쁨기금</p> <p>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p> <p>주경야독기금</p> <p>장갑다리기금</p> <p>천사랑기금</p> <p>한길기금</p> <p>현대모비스기금</p> <p>EG기금</p> <p>로레알코리아기금</p> <p>하라복지재단기금</p> <p>녹색꿈나무기금</p>
여성복지	저소득모자가정 여성가구주 건강과 자립지원	<p>아름다운세상기금</p> <p>이철해어커커기금</p> <p>탁자기금</p> <p>당신의햇살기금</p> <p>LG생활건강 행복미소기금</p>
장애복지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및 치료 지원 장애인독립생활 및 문화체험지원	<p>길사랑기금</p> <p>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p> <p>선화샘물기금</p> <p>세피양행복만들기기금</p> <p>송진우기금</p>

장애복지		행복한동행기금
		희망네트워크기금
		SKT기금
노인복지	무의탁독거어르신 생계 및 의료지원 저소득차매어르신 보호가정 지원	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은빛겨자씨기금
		미아너스건강기금
		HHC 사랑나눔기금
		그랜드테이블협회기금
의료지원	저소득 미숙아출산가정 지원 저소득 계층 아동 및 노인 무료치과진료사업 지원	교보생명 다솜이적은숨결살리기기금
		건강한 이세상 기금
문화지원	도서산간 및 빈곤지역 마을작은도서관 지원 문화소외지역 저소득계층 문화체험활동 지원	혼자만잘살은무소재민겨기금
		성도자엘상더기금
		행복한심표기금
		꿈꾸는나무기금
		섬기금
재해구호사업	재해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재건 지원	E-이름다운기금
연구	기부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지원 사업	아카이브기금
		연구소기금
		연꽃기금
		유한킴벌리 기금
기타	유기동물 보호단체 지원 등	이한태기금
		행복한동지기금
		아름다운팔찌기금
		아름다운에프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희망제작소기금
기금의전당	타기금과 통합되었거나,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새 영역 지원을 위한 기금	교보생명희망장학금기금
		도움넷기금
		우리은행기금
		롯데리아기금
		박고테기금
		청년동지기금
		최달석목사님을 추모하는 기금

2006 아름다운재단 기금영역별 모금과 배분

2005년 11월 ~ 200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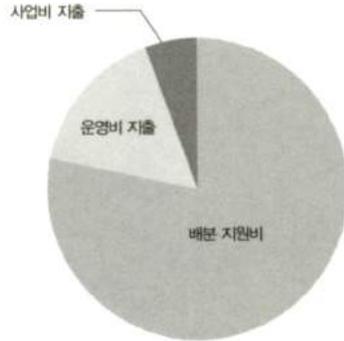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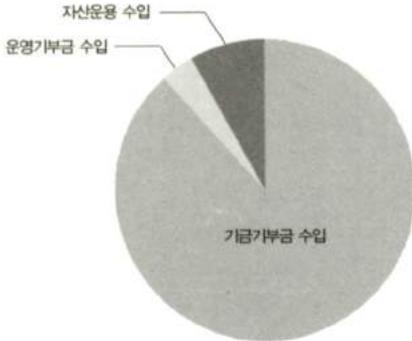
영역	기부금수입	비율	배분지원	비율
교육	1,308,565,688	12.04%	536,603,720	7.72%
기금전당	1,159,000	0.01%	1,121,276	0.02%
기타	1,266,660,202	11.65%	985,876,791	14.19%
기획	4,414,564,518	40.61%	2,942,635,832	42.34%
노인	420,704,688	3.87%	144,751,474	2.08%
문화	231,661,283	2.13%	76,487,425	1.10%
아동청소년	1,089,311,574	10.02%	670,133,687	9.64%
여성	421,452,024	3.88%	278,552,889	4.01%
연구	29,936,071	0.28%	43,132,603	0.62%
의료	744,846,228	6.85%	378,490,034	5.45%
장애	364,799,700	3.36%	103,991,164	1.50%
재해구호	8,835,100	0.08%	229,966,467	3.31%
현물	567,769,320	5.22%	557,767,770	8.03%
합계	10,870,265,396	100%	6,949,511,132	100%



한 눈에 보는 올해의 수입과 지출

2005년 11월 ~ 2006년 10월

구분	기금기부금 수입	운영기부금 수입	자산운용 수입	배분 지원비	운영비 지출	사업비 지출
금액	10,870,265,396	466,057,740	961,478,932	6,949,511,132	1,418,574,523	479,388,329
전년대비 비율	159%	26%	239%	244%	147%	135%



- ① 아름다운재단은 가능한 기부금의 직접목적 사용을 위해 '운영비(운영기부금)'를 별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 수입은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자산을 운용하여 생긴 이자소득 및 배당금입니다.
- ③ '배분지원비'는 개인 및 단체 지원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 ④ '운영비'는 아름다운재단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의 비용입니다.
- ⑤ '사업비'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재단의 연구, 조사, 출판, 국제협력, 홍보, 아름다운 가게 운영 등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2006 아름다운재단 대상별 통계 (2005년 11월 ~ 200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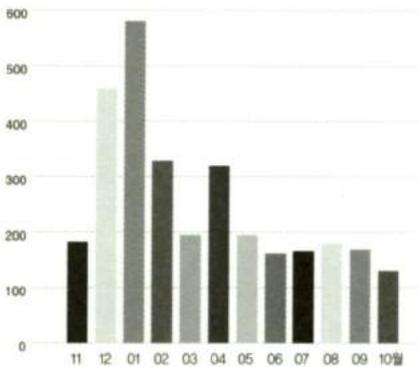
- 현물 및 현금 지원
 - 지원단체 수 : 813단체 지원
 - 지원개인 수 : 45,206명 지원 (문화나눔 포함)
- 기타 지원(법률상담, 교육지원 등)
 - 지원건 수 : 3,325건 지원

한눈에 보는 1% 기부자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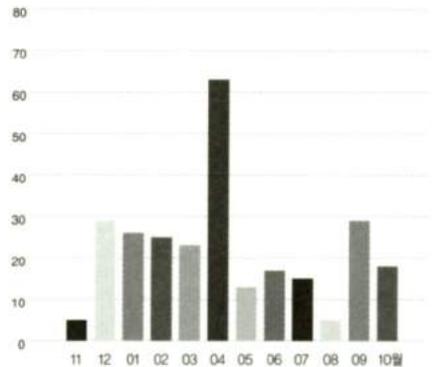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의 총 기부자 회원 수 : 23,840명

2005년 11월 ~ 2006년 10월 신규 기부자 현황

구분	개인	가계
2005년 11월	183	5
12월	460	29
2006년 1월	581	26
2월	329	25
3월	195	23
4월	320	63
5월	195	13
6월	162	17
7월	166	15
8월	180	5
9월	169	29
10월	131	18
합계	2,898	253



개인 기부자



가계의 기부자

아름다운재단 2006년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아름다운재단 배분의 지향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빈곤과 소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인 시혜가 아닌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하는 지원을 중시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지원대상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원의 전략적 배분과 현장 풀뿌리 공익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시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기금 배분을 통해 현장의 풀뿌리 공익단체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새로운 이슈와 현장의 목소리에 촉각을 세우고,

우리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각계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개별 단체의 사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적의 모델을 위하여 전략적인 배분을 지향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풀뿌리 공익단체와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소중히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며, 기부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세부내용과 진행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을 중시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과 배분뿐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획영역 1 _ 희망의 변화에 힘을 더하는 사업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빈곤가정, 소외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여성가장 등 다양한 영역 및 지역에서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2만5천여개의 현장의 풀뿌리 공익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이러한 현장의 비영리 풀뿌리 공익단체들을 통하여 빈곤가정, 소외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여성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풀뿌리 단체들이 그들의 바로 곁에서 늘 그들을 돌보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열악한 재정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문제로 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풀뿌리 단체들의 변화와 희망을 향한 도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개선과 희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풀뿌리단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① "변화의 새나리오" 사업

- 지원내용 _ 지역물뿌리단체와 NGO의 대안적 공익사업 지원 (사업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속지원)
- 기금 _ 1%기금(2000년 10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52개 단체 총 687,633,000원

2006년 신규 선정 단체

단체명	사업내용
관악주민연대	관악구 임대아파트 거주 빈곤노인세대와 어린이 지원을 위한 여성모임 및 공부방 조직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 지역공동체 희망의 씨앗 찾기 프로젝트
사경남여성회	더디 가도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하기
대전여민회	나눔과 성장이 기쁨이 있는 좋은 이웃 네트워크
사북면지역아동센터 꿈아울	한글을 넘어 세상으로! 사북면 주민을 위한 한글, 문화 교육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소통과 참여, 나눔의 일상화를 위한 해피대구동구만들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수동 아이들 건강지킴이
성매매없는세상이름	성매매 방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학교평화만들기	평화와 아이들의 인권이 꽃피는 마을만들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노동법 100문 100답'과 자원활동가를 위한 상담지침서 제작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꿈과 희망, 그리고 나의 날개 만들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결혼이주여성 '기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여성노동자회	근로빈곤 여성가구의 심리정서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실천사업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노원자부	참여와 연대를 통한 노원 협동공동체 지원 프로젝트
서울DFI	People First! 인간중심 통합사회를 위한 무장애 도시 기획단 찬반풍경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결혼가정 갈등예방 교육과 매뉴얼 제작(시범사업 성격)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대안 저널리즘 실천
문화지대 장애인이 나설때	장애인 인권 문화집지 '장애인이 나설 때 온/오프라인 발간 배포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청년실업자를 위한 방과후 아동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공소시효 연장과 배제방안 모색을 위한 공익소송 및 토론회 -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레방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전환 이후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숍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살아있는 박물관, 테마가 있는 수요시위로

2006년 2회차 자원 선정 단체

단체명	사업내용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지부	여성장애인 기초교육 지원사업
위례시민연대(지역복지센터)	건강도우미 사업을 통한 주부의 지역조직 자원 구축
인천여성민우회	여성한부모, 당당한 삶을 찾아 떠나는 단독비행
도봉시민회	살맛나는 동네, 함께하는 우리
사열린사회 은평시민회	건강한 은평, 아름다운 은평,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평 만들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당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정보공개 청구사업
장애여성공감	중증장애여성 자립생활자원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프로그램
푸른시민연대	참여와 나눔의 순환, 지역생활공동체 -십시일반
사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 빈곤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3+1상담사업
복지세상을 열어나가는 시민모임	청소년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지도력 형성 프로그램
함평새움터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의 이주여성들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작은손길	작은손길은 거리와 지역공동체의 희망입니다.
노동건강연대	성수동 영세노동자 노동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관야사회복지	지역사회 주민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통한 소주민조직화사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가정폭력상담소	우리들도 성을 알고 싶어요

② "게미스론서" 사업

- **지원내용** _ 풀뿌리단체의 시민 참여와 후원을 통한 자체사업 강화 지원
- **가금** _ 1%가금(2000년 10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15개 단체 총 42,890,000원

단체명	사업내용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학로 장벽 없는 공간 만들기 실천단 "자유"
문화지대 장애인이 나설때	느껴봐-문화지대 장애인이 나설때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진군지부	손 말 그리기 거리 축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모두에게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서 체험기회 만들기
지리산생명연대	성심재길 걷기대회-치없는 성심재도로를 향하여 걸어서 노고단까지-
성매매없는세상이름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상담시 필요한 홍보자료 제작
인양여성익의전화	내 몸의 즐거운 변화 '초경파티'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여성노동자의 당연한 삶과 권리찾기 캠페인
두레방	기지촌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전국드림인센터연대	전국 노숙인 서비스 지도 제작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실업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홍보
외국인노동자 인권복지회	이주인권 거리 캠페인
광진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천사가 되어주세요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함께해요~ 고향이아가~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광진 평화만당 잔치

③ "뜨거운감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지원
- **가금** _ 1%가금(2000년 10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77,350,000원

단체명	사업내용
함께하는시민행동	아름다운예산만들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인산경찰련	
고양여성인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외 법률자문단	예산감시네트워크

아줌마의 힘!

강동구에서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나눌만한 미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례시민연대 부설 지역복지센터'에서는 더불어 사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주부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우선 천호1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30명 기초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부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만나면서 활동의 윤곽들이 잡혀갔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건강도우미 활동이 시작되었고, 수족침회 강사에게 배워 수족침도 놓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 노숙자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천호동 공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썩뜸뜨기 봉사단을 결성하여, 공원에서 썩뜸봉사도 하고 수족침 봉사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의료욕구대상층을 위하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훈병원 가정의학과와 연계 독거노인 건강검진 등의 활동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들의 '아줌마' 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강동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강동지역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주부들의 지방자치 교육 및 월 1회 모임을 통해 주제별로 의회 모니터링, 제도개선 개입활동 등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동구 주부예산분석 모임을 통해 특수학급 확보, 편의시설기금폐지 저지, 지역복지협의체 조례수정 등의 뜻하지 않은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우리안에 이미 있다는 것,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면 삶의 터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재단은 작은 변화, 그러나 큰 희망의 변화를 일구고자 하는 풀뿌리 공익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아름다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주부여러분, 그리고 위례시민연대 부설 지역복지센터 담당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공익시상

아름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기획영역 2 _ 희망을 일구는 사람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사람이 희망입니다

오늘날은 영웅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이름없이 소리없이 일하는 의로운 사람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익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희망의 근거일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나라 의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희망의 증거를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단체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의 휴식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1인당 평균 교육비는 58만6,000원, 연간 교육시간은 3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국내기업 직원 교육비는 1인당 108만3천739원이며, 연간 교육 시간은 7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을 한 지역 한 단체에서 일하면서도, 휴식이나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에 기회가 없었던 헌신적인 활동가들은 지원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희망을 일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희망을 일구는 이름없는 작은거인들, 그들이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겠습니다.

① "비움과 채움" 사업

- **지원내용** _ 사회복지단체와 지역 풀뿌리 단체 활동가들의 심을 통한 재충전과 학업과 연구 지원
- **기금** _ 내일을 위한 기금(2001년 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21명/단체, 총 54,974,000원

성명	단체명	구분	프로그램명
이○○	녹색연합	여행	다른 세상에 대한 확신을 얻다
남○○	서울관악자활후견기관	여행	지리산으로 떠난 중견실무자
윤○○	사남북문화동행교육원 한누리	여행	탈북 청소년들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중국 여행
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여행	제주도여행을 통한 활동가 부모와 자녀(위탁아동)들의 외출
김○○	희망세상	여행	여자 셋이 떠나는 웃음여행 "나를 버리고 가지"
김○○	지역아동센터 밀알공부방	여행	아름다운 사랑 회복을 위한 농촌공부방 실무자 가족여행
조○○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여행	일도 잊고, 시름도 잊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여행	지중해로 떠나는 두 번째 신혼여행
류○○	인산YMCA	여행	신의 선물 바이칼로 떠나는 유씨네 가족여행
윤○○	한국여성민우회	여행	더 넓은 세상, 더 큰 호흡 - 여성운동가 재충전 호주여행
정○○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연수	참마음을 찾아 소진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음수련
박○○	사(사)알여성회 성폭력상담소	연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즐거운 도전
구○○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수	모자이크 네트워크 연수 - 우리가 변해야, 지역이 변한다-
김○○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연수	필리핀 빈민지역조직운동 배우기
김○○	푸른생활협동조합	재충전	국제봉사활동을 통한 내 삶의 비움과 채움
김○○	사동북아평화연대	재충전	다시찾아가는 우리 민족 삶의 현장
고○○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해외컨퍼런스	2006 NCIL IL Conference
박○○	참여연대	해외컨퍼런스	2006 뱅쿠퍼 세계평화포럼
이○○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해외컨퍼런스	2006 뱅쿠퍼 세계평화포럼
최○○	평화인권연대	해외컨퍼런스	비폭력의 세계화
김○○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해외컨퍼런스	2006 IDEC(국제민주교육회의)

②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사상

- **지원내용** _ 공익과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의인, 활동가 및 단체 발흥 및 사상
- **기금** _ 의인기금(2003년 4월 개설), 심신활동가기금(2003년 4월 개설), 소금창고기금(2002년 1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14,228,120원
공익사상 지원, 공익제보자의 건강 관련 보고서 출간, 수상자들에 대한 독서 서술술 기념식수

(공익사상 수상자)

민들레 홀씨상 : 안남 어머니 학교

심신활동가상 : 김나무골 새터 공동체와 이춘희, 이유자 님 / 관악주민연대와 강인남 님

③ 신한 의인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공익과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의인 시상
- **기금** _ 신한의인후원기금(2006년 9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60,000,000원

(신한 의인후원금 전달) 총 6인

故 김철섭 육군 소령, 故 김도현 공군 소령, 故 서광율 님, 故 주민철 님, 오덕진 님, 이 규 님

④ "제 4회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공모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사회 공익을 증진시키는 사례 선정 시상
- **기금** _ 1%기금(2000년 10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5,000,000원
- **지원처** _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공동지원 :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실업극복국민재단

[**풀뿌리상**] 품앗이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만들기 (단체명 : 동대문구 품앗이 공동체)

[**풀 잎 상**]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 (단체명 :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

[**풀 꽃 상**] 지역자차살해를 위한 의정참여활동 (단체명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목포지부)

살 맛 나는 임대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단체명 : 관악주민연대)

[**풀 씨 상**] 자연 속에서 사회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단체명 :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동(단체명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북부지역회원모임)

우리사회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 신한 의인 후원 지원사업

2006년 10월 2일, 신한의인후원기금을 통한 1차 의인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故김도현 소령 등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6인의 의인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도난 차량을 자신의 택시로 막아 세웠던 의로운 택시기사 이 규 남은 남다른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도주하는 차를 보고 별다른 계산 없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저는 아내도, 아이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와 저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하루 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었으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추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의인분들을 모시는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께 존경과 지지를 전하는 '의인 후원금 전달식'은 신한은행의 '의인후원예금'이라는 특별상품 판매액의 0.2%로 조성되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예금상품을 만든 신한은행의 기획과 마음과 뜻을 담아 가입하신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명예'를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의인 추천을 기다립니다.



〈여섯분의 의인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故 김철섭 육군 소령

대대전술훈련 종료 후 광대역 안테나를 철거중이던 상병이 안테나가 고압선에 접촉되면서 일병과 함께 감전되어 자신과 일병은 중상을 입고 일병을 구하던 김철섭 소령은 감전되어 후송 중 사망. 대대장은 경상을 입음. (2004.11.19)

故 김도현 공군 소령

김도현 소령은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특수비행 임무로 수원기지를 이륙하여 5번기, 6번기가 상호 교차기동 완료 후 Rolling 조작 중 6번기가 기지내에 추락하여 사망. 민간인지역에 추락하지 않고자 탈출기회를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음. (2006.5.5)

故 서광을 님

여름 휴가중 울릉도 성인봉에서 회사동료의 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조키 위해 뛰어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 의인의 가족이 모두 사망장면을 목격함. 외부증인이 없어 사건 증명이 여의치 않았음. 안타까운 의인의 사연으로 알려짐. 현재 의사상자 심의 중(2005.8.8)

故 주민철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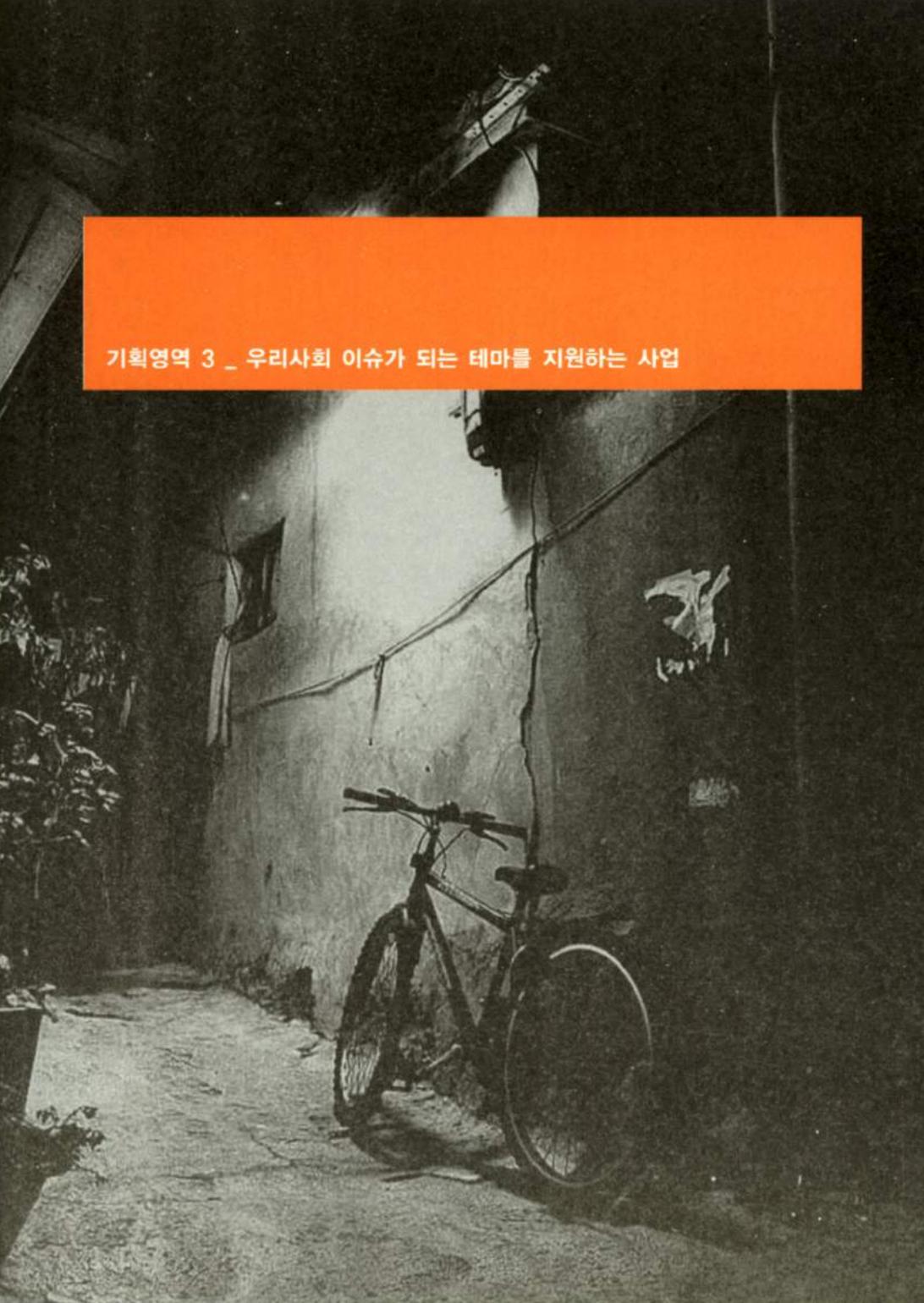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물이 불어난 울산 태화강에 투신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뛰어듦. 여성은 구하고 본인은 사망. 건설플랜트 노동자. 노조파업으로 당시 대치하고 있던 노조와 경찰 등이 합심하여 시신수색 작업을 수행하는 등 의로운 행위 앞에 모두가 숙연해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운동이 이익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에 기반하는 것임을 사회적 교훈으로 남김. (2006.7.16)

오덕진 님

새벽 부산 영도 청학시장 통닭집 서터문을 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뒤편'하고 물었다 도둑의 흉기에 상해 입음.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3급 장애인으로 머리에 15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도둑을 붙들고 있어 검거를 도움. 안타까운 의인의 사연으로 알려짐. 현재 의사상자 예우법이 개정 중 (2006. 4. 25)

이 규 님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도난 차량을 자신의 택시로 막아 세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택시는 크게 부서져 폐차시켜야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함. 안타까운 의인의 사연으로 알려짐(2006. 3. 19)



기획영역 3 _ 우리사회 이슈가 되는 테마를 지원하는 사업

전기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없는 삶이 있습니다. 먼 타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난해서 체납된 전기료로 인해 단전조치가 취해지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은 둘째하더라도 휴한기와 혹서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생사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되어서 아직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들, 그들의 후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동포들이 여전히 겪는 차별과 제제가 있습니다. 광복이 역사책으로 사라진 오늘,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우리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손길이 부족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들어온 그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족을 위해 멀리 바다를 건너 이국땅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갔듯이, 아시아의 이웃들이 같은 이유로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를 너무 빨리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착의 어려움과 인권침해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있는 그들의 모습에는 어제의 우리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서기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우리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테마를 찾아 지원합니다. 우리사회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여 기부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이
지금 더 필요한 일들

① 「빛 한줄기 희망 나누기」 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단전대상위기가구의 연체전기요금 지원
- 기금 _ 빛한줄기 희망기금(2003년 1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253,636,840원 1,377세대 지원

② SOS 긴급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2006년 여름 수해긴급지원을 위한 한시적 긴급 모금 지원
충북전천의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17가구의 주택복구 지원사업
- 기금 _ SOS 기금(2003년 1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23,133,940원

③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기획사업 지원(사업평가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가능)
- 기금 _ 더불어숲기금(2002년 7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32,040,000원

사업 1 : 이주노동자단체 전문 활동가 교육 지원

대상	내용
구○○(아시아인권문화연대)	네पाल어학습, 관련단체, 귀환인 방문, 고용허가제감시활동 네पालNCC사무소 및 민간단체 6개월
박○○(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어학원영어연수, MFA자원활동, 귀환프로그램 시범사업장 등 방문 필리핀 마닐라 6개월
이○○(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영어,스리랑카어 학습, 현지인한글교실, 귀국인방문 등 필리핀, 스리랑카 6개월

사업 2 : 고용허가제 실시 송출국 모니터링 사업

대상	내용
박○○(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고용허가제 현지 실태조사 3개국 총 12개 지역 고용허가제관련법안과 MOU내용, 송출실태 2005년11월 ~2006년 8월

아시아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2006년 더불어숲기금은 2005년 새로 도입된 이주노동자 정책인 '고용허가제'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전국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를 보낼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진 나라들 중 스리랑카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실제 이주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던 활동가들이 직접 방문하였으며 여러모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맺는 나라들은 이주노동자 송출과정을 공식화, 투명화하여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한화로 몇천만원까지 되었던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공식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정보통신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한국으로 가기 위한 신청서류를 얻는 법을 몰라서 턱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되는 서류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천만원씩의 웃돈을 얹어주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전교육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 앞에서 어느 정부도 '우리가 조사를 다 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NGO들과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NGO는 자국민의 한국으로의 이주노동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교육을 부탁해 왔습니다.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주노동을 신청하는 본국에서부터 이주노동을 하는 한국에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튼튼한 도움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토로에서 온 편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시대 강제징용간 조선인의 마을인 우토로는 수도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 해방되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키고 아껴서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 우토로 주민들에게 강제철거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한들 수십년을 함께 해 온 가족같은 이웃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뿌리를 내리는 일이 마을 주민의 대부분인 노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보내주어서 2005년에는 민간에서만 4억이 넘는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물론 우토로 토지를 확보하기에는 충분치 못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또 다른 힘이 되어 우토로를 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이후, 우토로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월 급작스러운 강제철거 집행고지가 났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UN 인권위원회 인종차별 보도관이 일본 내 재일한국인 등이 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음을 언급하여 일본정부가 우토로 마을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함을 시사하였습니다. 12월에는 외교 통상부에서 우토로 살리기에 예산



을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우토로의 법적 소유권자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토로 토지는 이노우에 마사미라는 개인과 서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 회사 간에 소유권 분쟁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승소한 서일본식산은 비교적 우토로 마을 주민에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토로 주민회는 우토로의 토지 확보와 1세대 노인들의 집합주택 건립을 포함한 '우토로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마을에 이웃이 생기고, 동포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토로에도 해방이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속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폭우피해, 그리고 SOS 긴급모금

하나의 희망, 또 하나의 희망,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
급작스런 폭우피해로 모두가 당황하고 힘들었던 7월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모금을 하지 않느냐는 몇몇 기부자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수해모금은 각종 모금단체와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작은 민간재단의 수해모금은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생색만 내는 꼴이 될까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이는 통로가 하나라도 더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수해지원 긴급모금을 열었습니다.



희망 하나. 아름다운재단 SOS모금 사상 가장 많은 금액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름다운재단 SOS모금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해피빈의 아름다운재단 해피로그를 통해 모인 모금액과 콩기부까지 포함하여 총 617건의 기부로 40,560,900원이 모였습니다. 모금게시판에는 단지 돈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하는 이웃들의 진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겨주신 한 줄, 한 마디가 모두 감동으로 안습(요즘말로 '눈물이 글썽해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 가난한 사람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다.

이렇게 모인 희망으로 충북 진천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저소득,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지원이 절실한 17가구의 주택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비에 젖은 도배, 장판은 물론 비가 새는

남은 지붕도 고치고 못쓰게 된 보일러도 다시 놓아드렸습니다. 공사는 '표내기식 지원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두꺼비 건축'에서 전담했습니다. '두꺼비 건축'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조를 받으시던 분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서고자 만든 '자활사업공동체'입니다. 총 4천만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은 피해가구를 살리는 동시에 또 다른 이웃의 자활을 돕는 '아름다운 일석이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나눔은 공동체를 복원합니다.

'두꺼비 건축'은 처음 약속한 공사 외에도 젊은이 없는 농촌가구에 필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의 턱도 높이고 페인트 칠도 새로 했습니다. 이제 각 가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르신 댁에 쌀이라도 좀 갖다 드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를 한 기념으로 아름다운재단 기금에 1% 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눔의 기적이 다시 나눔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힘들지만
 별의 땀과 열정,
 사랑과 나눔으로

함진현 (6살) 글



기획영역 4 _ 시민과 공익을 잇는 온라인 복덕방 사업

NAVER 해피언 새로운 기부 문화에 N2N, 해피언 기술이온계단

함께하는 기부
이벤트
해피로그
기부현황
후원기업
재정간담회

기부하기 | 후원기업 | 후원행사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2006년 11월 11일 일요일

11월 지역사랑 이야기

기간: 2006년 11월 09일 ~ 11월 22일

지역사랑 이야기

01 02 03

복덕방이 만든 온라인 복덕방

해피로그

상반기 후원 기업간담회/ 후원사간담회는 해피로그를 신청해주세요! **입원하기**

기부하기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검색 | 해피로그 검색

모든 기부내역 | 물 (신청) | 후원기업 | 복덕방 | 후원기업 | 후원기업

11월 해피로그 기부현황

후원액:	25,126,004 원
후원내역:	4,633 건
후원기업:	254,224 개

2006년 총기부현황

후원액:	768,644,875 원
후원내역:	319,854 건

해피로그

해피로그 기부내역 | 후원내역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기부내역 | 후원내역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기부내역 | 후원내역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기부내역

해피로그 기부내역 | 후원내역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기부내역 | 후원내역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기부내역 | 후원내역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기업

해피로그 후원기업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기업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기업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행사 | 후원행사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행사 | 후원행사 | 후원기업 | 후원행사

해피로그 후원행사 | 후원행사 | 후원기업 | 후원행사

어디에 기부하실지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 눈물을 찾아 다닙니다. 웃음소리나 고함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눈물의 소리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과 함께 하는 것, 그 눈물을 옆에서 닦아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재단의 존재이유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름다운재단 혼자서 모든 눈물을 닦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기부를 아름다운재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시민 여러분이 직접 풀뿌리 단체들로 기부하게끔 소개해드리고, 연결시켜 드리는 것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 나의 지역에 있는 단체를 한 번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재단이 컴퓨터로 이어진 인터넷 세상속에 나눔의 중개소- '해피빈' (<http://happybean.naver.com>)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해피빈 사업

- **지원내용** _ 공익포털사이트(<http://happybear.naver.com>) 운영을 통한 풀뿌리단체와 네티즌의 기부 연계 및 지원
- **기금** _ 해피빈 기금(2005년 5월 개설), 해피빈 서비스 사업기금(2005년 5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716,748,028원/ 350,000,000원 상당 추가 현물지원
- **관련정보**

해피빈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풀뿌리 공익단체 : 1,649개 단체
 네티즌 기부자수 : 110,493명
 네티즌 기부금액 : 251,066,775원
 나눔에 참여한 기업 : 30여개 기업 (1,671,402,236원)

• 해피빈기금 재미있는 사업 사례 보기

사업명(기업명 및 기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원)
공부방아이에에게 Catch UP!초등영어를 드립니다(안녕영어)	영어교재및CD지원	5,700,000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메술평화여행지원(해피빈기금)	사업비지원	9,000,000
노숙인분들에게 따뜻한 짐자리를 드리고싶습니다(이영민님)	슬링포켓 1000개	3,000,000
달려라 소달중학교(해피빈기금)	런닝머신 지원	1,520,000
몰래몰래 신디(ubs은행,모빌리언스, N-캐쉬, 해피빈, 파파리차, 파파리캐드, 일라드)	소와아동 2천여명 선물비 및 케이크지원	77,091,740
아름다운피자피티 2차(도미노피자)	피자지원	24,000,000
행복한 콩 세일(해피빈기금)	사업비/기기지원/추가지원	293,324,560
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싶어요(해피빈기금)	보청기지원	1,250,000
서울예술기획과 함께하는 나눔 공연 케니키티(차)서울예술기획	공연티켓지원	12,100,000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크레딧자전거)	자전거 70대 지원	6,713,980
아름다운피자피티 3차(도미노피자)	피자지원	24,000,000
엄마빠랑 산책할래요~(영세기업)	장애아동 전용 유모차 10대	5,000,000
서울예술기획과 함께하는 나눔 공연 번들플로워 2(서울예술기획)	공연티켓지원	9,600,000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봄바니에웨딩샵, 이철해어커커)	웨딩드레스지원	4,800,000
원기야, 너의 꿈은 이루어질거야(해피빈기금)	사업비(휠체어)지원	1,626,450
콩을 퍼뜨려 주세요(해피빈기금)	사업비지원	300,000,000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해피빈기금)	사업비지원	3,515,751
환경을 생각하는 해피로그 모어래!(마루)	의류지원	1,100,000
아이들이 사는 성남한길(남)	성교육 애니메이션비디오 300세트지원	5,000,000
사회복지대학생 장애화캠프(해피빈기금)	사업비지원	5,000,000
서울예술기획과 함께하는 나눔 공연 (조지윈스턴)3차(서울예술기획)	공연티켓지원	2,800,000
고마운 마음, 커피 한잔으로 함께해요(사이공닷컴)	믹스커피지원	1,800,000
우리는 선의의 파파리차(해피빈기금)	사업비지원	159,000
2006년 긴급구호 수해모금(모빌리언스)	사업비지원	10,000,000
서울예술기획과 함께하는 나눔 공연 아이스빌레 4차(서울예술기획)	공연티켓지원	6,000,000
제 4차 아름다운 피자피티(도미노피자)	피자지원	24,000,000

사업명(기업명 및 기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원)
해피빈주년 이벤트(해피빈기금)	사업비지원	19,022,000
홍선생미술과 함께하는 미술이야기(홍선생미술)	전국 27개공부방 미술교육지원	103,680,000
오버추어와 함께하는 지역사랑이야기	사업비지원	100,000,000
스외 청소년에게 2006 스노우캣다이아리를 드립니다(mmmg)	다이어리지원	15,000,000
할머니, 할아버지 진짚상에 새김치 엮어드세요!(두산정보통신)	김치지원	8,000,000
노들장애인아간학교문화축제지원(2006.1)	사업비지원	2,000,000
몸장담쟁한강캠프로 떠나요(본다울한의원)	캠프지원	12,000,000
델리창바지,노트,소화기,천연비누,이사 등등 복덕방중개 다수 등	현물지원	6천5백만원상당

* 현물지원부분으로 인해 실제 배분금액과 위의 지원내역리스트 금액에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본 해피빈



원기에게 희망 준 해피빈 특별이벤트

파일럿이 꿈인 원기, 그러나 원기는 희귀 근육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은 커녕 값비싼 휠체어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해피빈은 2006년 6월 원기를 위한 해피빈 특별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행기는 아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원기만이 조종할 수 있는 휠체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네티즌이 기부하였고, 네티즌의 한푼 두푼은 1,625,450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 해피빈의 매칭기부로 이어져 3,250,900원이라는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네티즌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 기간 378개의 희망메세지가 남겨졌고, 원기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아가.. 너무 미안해

하람.... 하늘이 내리신 소중한 사람.

엄마가 오늘 우리아가 이름 지었다. 우리 아가 마음에 들까? 하람아...

미안한 마음만큼이나 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등지에 어린엄마들과 이곳에 계신 선생님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찾은 엄마 마음에 딱 드는 이름이 있더라구나.

첨으로 너에게 쓰는 거라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할지 모르겠네. 사실 인사하는 것조차도 많이 어색하단다. 우리 하람이에게 엄마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구나. 그럴 자격이 없을 뿐더러 웬지 모를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만큼은 다른 때보다 우리 하람이에게 엄마라는 말을 하고 싶구나. 이런 엄마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그래도 오늘만은 이해해주렴.

하람아.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니?

갑자기 찾아온 심한 입덧으로 혹시나하는 생각에 병원에 갔었지. 병원에서 "3개월이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선생님 말에 그 순간 기쁨보다는 어떻게든 낄지워야겠다는 생각이 온통 내 머릿속을 스치더구나.

그렇게 울며불며 눈물을 쏟아내면서 병원을 뛰쳐나왔지. 그후로 더 자라기전에 빨리 지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다니면서 여러병원에 다녔었지.

솔직히 조금 갈등하면서 갔었지만 마지막으로 간 병원에서 초음파속으로 보이는 너의 모습과 처음으로 들려주는 심장소리에 낄지워야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구.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라 시간을 함께 해온거란다.

- 중략 -

어린엄마동지 해피로그에서. 대한사회복지회 어린엄마동지.
happylog.naver.com/littlemom.do

이벤트로 본 해피빈

2005년 겨울, 소외아동들에게 선물전하는 이천여명의 몰래산타 탄생!!

2005년 11월 소외된 아동들에게 네티즌이 '몰래산타'가 되어 선물을 모~으래 전했습니다. 총 2,136명의 산타가 탄생되어 그 만큼의 아이들이 잊지못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총 모금액 64,080,000원)

파파라치는 나쁜사람? 해피빈 선의의 파파라치는 좋은변화를 위한 참여대!

2006년 6월 공익번호사그룹 공감과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6곳과 함께 베트남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성 플랜카드를 신고하는 '선의의 파파라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이 인권침해현수막을 직접 디카로 찍어 신고

및 서명을 해주었고, 이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제도개선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이벤트 이후 국제결혼중개 관련업체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의 인권침해성 플랜카드가 걸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자하는 이와 받고자하는 이들을 잇는 해피복덕방을 통해 소중한 맘을 나누는 사람들 '아름다운 이사'

해피빈을 통해 이사업체들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열심히 일하는 비영리 단체에게 무료포장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가정과 단체가 무료 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참여이사업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버주어코리아와 함께하는
10월 지역사랑 이야기
대상: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등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 후원회, 후원자, 후원자 단체 등

- 시행 기간: 2006년 10월 20일 ~ 11월 1일 00:00까지 (주말 제외) (월요일 제외)
- 종료 기간: 2006년 11월 1일 23:59:59 까지 종료
- 참여 방법: 퀴즈나 설문지를 통한 응모 또는, 해피빈 24시간 전국 해피빈 24시간 후원회 (www.happybin.com)를 통한 후원
- 후원 방법: 후원회 (www.happybin.com)를 통한 후원

10월 10일 00:00 ~ 11월 1일 00:00까지 후원금 총액: 200,000 원
11월 1일 00:00 ~ 11월 31일 23:59:59 까지 후원금 총액: 1,000,000 원
총 후원금: 1,200,000 원

기부금 모으기

'콩'으로 기부를 한다? 매달 전국방방곡곡에 '콩'을 나누는 해피빈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금액을 가상의 돈인 '콩'으로 전환하여 네티즌의 다양한 참여(퀴즈, 설문)를 통해 '콩'을 획득하여 직접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오버주어코리아와 함께 '지역사랑이야기' 라는

콩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콩'을 기부하고 싶다면?? 해피빈을 자주 찾아주세요.

기획영역 5 _ 공익변호사 지원 · 파견 사업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共感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적은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전업적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감"은 2004년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재정적 문제 등의 제약조건으로 상근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노숙인·노인·아동·성소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과 주민자치·예산감시·해외 한국기업 감시·공익제보자 지원 등 공익법 일반 분야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우리 이웃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법적인 잣대로 상담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기에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쁘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하고,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희망을 변론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희망을 변론합니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① 공감 공익변호사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풀뿌리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함으로써 법률상담, 공익소송, 법률교육 지원
- **기금** _ 공감 기금(2003년 1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259,606,843원

지원단체 수	소송지원	기획소송	법률교육·상담	연구조사(세미나)
31개 단체	95여건	10여건	약 3,220여회	510여회

* 올해 750여건 이상의 전화상담 문의가 들어왔으나 변호사의 부족으로 개인상담 및 소송의뢰는 아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원구분	지 원 사 업	
파견단체	지원영역	지원내용
	주민자치	주민참여매뉴얼 및 지역단체에 대한 개별적 자문 등
	이주여성	신원보증철회 피해 이혼 등 성매매피해소송 및 활동가 법률교육 외
	장애인/복지시설	청계천 접근권 차별소송 및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 활동 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차별 대응활동 및 인권침해 사건 결합 등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피해 등의 소송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보고서 준비 등
	난민	버마, 네팔 이의신청, 불허처분취소소송 및 난민법 제개정운동 등
아동/청소년	편레수집 및 법률자문, 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개입 매뉴얼 기획 및 교육 등	
기획소송	함께하는시민행동, 외노협 등과 함께 주민소송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10여건 기획 진행 중	
법률교육	공감에서 기획하여 대한변협, 외노협 등과 함께 법률교육 및 매뉴얼 작업 외 지원단체교육 약 920여회	
연구조사	공익법활동 관련 세미나 120여회 및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연수	
기 타	- 일본 오카야마퍼블릭법률사무소 심포지움 발제 및 민단 재외동포법 강의 (일본지방변호사회)	
	- 시애틀서 무료 법률상담 및 세미나 "한국의 공익변론" 발제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 민변 반박보고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6년 7월 공감의 공익소송 승소 기사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절은 부당”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이은신 부장판사)는 21일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 36명이 D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여행자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승소하게 된 첫번째 사례로, 관련 보험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비장애아동과 함께 서울, 인천등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D사는 내부방침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동들은 뇌병변, 발달장애, 언어장애 등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을 받는 정도의 장애였고, 아동 개개인에게 도우

미교사를 배정해 일반인들보다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원고들은 “D사의 태도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라며 지난해 12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그동안 장애아동들에 대해 위법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속돼왔던 차별적인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해 설립된 국내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모임으로 현재 5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상근활동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 장사복 기자

6. 가난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 : 아동, 청소년 영역



우리나라의 빈곤층 어린이·청소년은 적게는 100만명에서 많게는 16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급식값(점심값)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는 초·중·고생은 52만6천명(2006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가정에서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로활동을 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비영리 공부방이 전국에 1700여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 900여 곳만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민간재단의 지원이나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에 기대어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지만, 이제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해외여행을 갑니다. 방과후에는 사교육을 통하여 학습뿐 아니라 예체능과 같은 교양까지 습득합니다. 가난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삶의 격차와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와 소외를 줄이기 위해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미래 우리 사회의 계층 격차와 소외로 다시 가난의 대물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미래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주거 지원에서부터, 공부방의 도서 및 컴퓨터 등 기자재 지원과 독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나아가 여행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 우리의 미래도 건강해집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밥과 꿈 그리고 내일

① 소년소녀가장의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소년소녀가장의 주거 임대료 · 관리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시범 사업 지원
- **기금** _ 솔가금(2002년 12월 개설), 신한지주금융회사가금
- **배분내역** _ 총 143,156,091원

사업 프로그램	대상	내용
작은집에햇볕한줄	실질적소년소녀가정 67세대	공공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주거소외아동의임대료, 관리비지원
시범사업-민간임대거주 주거빈곤아동지원사업	한국도시연구소와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협력	사업민간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빈곤아동 주거안정사업 -시범사업
지상위의방한칸	실질적소년소녀가정 6세대	공공임대입주예정인주거소외아동의보충금지원

② 책 읽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

- **지원내용** _ 빈곤/소외 아동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전국공부방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와 공동사업으로 진행
- **기금** _ 한술교육 신기한나라만들기기금(2001년 10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18,547,393원

③ 청소년 이용시설 IT 기자재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청소년 이용시설 IT 환경 개선을 통한 IT기 활용능력 개선 지원
- **기금** _ KTF big자기기금(2003년 8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95,559,590원 11개 청소년 공부방

지원명(단체명)	지원내용
아가페지역아동센터, 충도아동청소년공부방,	컴퓨터, 빔프로젝터, 및 기타 기자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강동공나무청소년공부방,	
낙육청소년쉼터, 고양 청소년쉼터 등지	
마군담 농업학교, 느티나무 공부방, 남동청소년쉼터	
재한몽골학교, 로템청소년학교	

④ 소외 아동/청소년의 여행 지원

- **지원내용** _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을 통해 아이들의 여행을 지원
- **기금** _ 길 위의 희망찾기 기금(2001년 개설), 하나투어 함께 가는 희망여행 기금(2005년 2월 개설)
- **배분내역** _ 21개 단체, 총 86,009,480원

단체명	사업명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말레이시아 원주민과 함께하는 숲 살리기 여행학습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모두 건강해"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아침나 평화학교)	착한 카메라 - 아침나의 아이들, 재일코리아인 1세들의 삶과 만나네
(재사랑의 씨튼수녀회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여수열린지역아동센터 흑빛지역아동센터	제천에서 금강산까지 550km자전거 중증 여행 '소망을 나르는 자전거 타기' you are special!!(중장기쉼터 청소년들의 자존감향상을 위한 영상체험캠프) 제주도 문화유적답사 및 체험학습 5,18만중항쟁 현장을 찾아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금정자활후견기관 부설 금정 청소년자활지원관	섬진강 물길따라 떠나는 남도 국토기행 <섬진강 길동무 되자꾸네>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강화와 농촌 사랑을 위한 "해오름 농촌체험·탐방 프로젝트"
창 길잡이의 집 인천보육원 부설 푸른마을아동센터	세상구경하기 "나를 알고 우리를 알면 백전백승!"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자발성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한 여행)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청소년생활공동체-한몸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바로 우주의 중심 여행을 통한 문화생산자 만들기 프로젝트 -사진과 걸음 나를 찾아 떠나는 도보기행 - 밭골에서 만난 희망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청운종합복지원 청운보육원 가톨릭푸르터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자아를 뛰어넘는 여행 - 지금, 참 나를 만나러 갑니다 시설청소년의 문화적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 "내가 간다, 내가 크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푸른바람
사랑육아원 사랑 수능공부방 주안지역아동센터 해명지역아동센터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 시설아동과 비시설아동이 함께 하는 여행 분단의 아픈 역사를 찾아서 꿈쟁이들의 갯벌여행
구세군 아산지역아동센터 희망학교	떠나재 효여행 내 마음의 고향 만들기

⑤ 소원우체통 사업

- **지원내용** _ 가난한 아이들로부터 소원이 담긴 편지를 받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원, 삶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소원을 지원
- **기금** _ 소원우체통 기금(2001년 1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50,319,709원

이름	지원내용	지원시기
정○○, 고○○, 안○○아동	역취중 수술 지원, 동생을 위한 신발한켈레와 옷한벌, 사시 교정지원	2005년 11월
소외아동 약 670명	해피빈과 연말 이벤트 '돌래돌래 크리스마스'	2005년 12월
다솜공부방, 아산모자원, 박○○	겨울방학 캠프 및 환아가족의 눈속의 나들이 지원 눈속의 겨울 나들이	2006년 1월
소외아동 54명	교복 및 학용품 지원 '새학기·새마을·새교복'	2006년 2월
김○○아동 외 2인	중증장애아동에게 인터넷을 통해 바깥세상을 보여주는 노트북지원, 소외아동의 학교복구를 위한 물품, 교통비지원,	2006년 3월

한누리지역아동센터,봉명지역아동센터, 한사랑지역아동센터,초록나라어린이도서관, 강릉방과후공부방네트워크	땀발 가꾸기 지원 '꽃씨를 뿌려요, 땀발을 가꿔요'	2006년 4월
정○○, 김○○, 조○○	보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 지원 '아름다운만남'	2006년 5월
유○○, 이○○, 박○○	자유주제	2006년 6월
허○○, 전○○, 백○○, 전○○, 한누리지역아동센터, 연무초등학교, 진안공동산공부방, 임○○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며: 꿈을 이루기 위한 물품지원	2006년 9월
진○○, 오○○	새 날개를 단 천사: 소액치료비지원	2006년 10월
JG아동공부방, 늘사랑아기집	미리크리스마스 : 겨울나기 물품지원	2006년 11월

⑥ 저소득 소외 아동의 독일 월드컵 체험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소외 아동들이 직접 독일을 방문 월드컵 축제를 체험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지원
- **기금** _ 오필승코리아 기금(2002년 6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266,397,286원, 총 31명 지원
- **활동내용**
 - 독일 현지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열 두 번째 응원 선수
 - 독일 현지에서 국가대표팀의 3경기(토코, 스위스, 프랑스 전)를 관람하며 응원
 - 월드컵 안에 작은 월드컵
 - 독일 현지의 장애인 축구단, 유소년 축구클럽, 청각장애우학교 축구단을 방문하여 3번에 걸쳐 실제 친선 축구 경기
 - 문화교류
 - 독일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을 응원국가로 선택한 Anne-Frank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에 대한 소개와 문화친선교류

⑦ 피자파티 지원사업 (기금이 아닌 자원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소외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에 도미노피자와 연계하여 파티를 위한 피자를 지원
- **배분내역** _ 총 60,757,950원, 총 417개 공부방 지원

⑧ 하늘정원 만들기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소외아동의 문화체험지원과 생태캠프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의 하늘정원을 지원
- **기금** _ 푸른세상을 여는 기금(2003년 8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2,590,000원 /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지원

오피لس코리아원정대의 아름다운 독일 원정 이야기

2006년 6월, 세계의 온 관심이 작은 공 하나에 모아졌던 독일 월드컵.

그 뜨거웠던 여름, 아름다운재단은 오피لس코리아 기금을 통해 월드컵을 통해 차별과 소외 없이 모두가 하나 되지는 뜻을 담은 특별한 경험에 함께 했습니다.

소외 아동 청소년 축구단과 일반인 자원봉사 서포터즈 31명으로 오피لس코리아원정대를 구성하여 직접 현지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피لس코리아원정대는 2006년 6월 12~25일까지 13박 14일의 독일 원정 기간 동안 2006년 독일월드컵 축구 관람과 독일 장애인단체, 독일 유소년축구클럽 축구팀과의 축구경기, 대한민국 홍보사절단 역할로 독일학교 방문, 기타 독일 문화, 역사 체험 등 다양한 활동 참여하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에 함께하였습니다.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독일 하늘 아래서의 특별했던 경험들은 넓은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포부와 희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참 재밌었고 독일에 가서 많이 구경도 했습니다.

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이 안나와요.

어... 한국에 와서도 애들한테 소문냈더니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피셀코리아 원정대 언니 오빠들 모두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싶어요.

독일 보내준 거 감사해요.

모든 선생님들 독일에서 재미있게 해주시고 돌봐주신 거 감사해요

- 청주지역 아동센터 인호(가명) 12세



쉼터 사무실 컴퓨터 책상 앞.

위의 글은 한글이 아직 서툰 인호가 하고 싶은 말을 옆에서 불러주고 제가 썼습니다.

막상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더니

소리도 안 내고 있다가 울기만 하더라구요.

보고 싶고 또 자기한테 다들 잘 해주고 좋은 추억 많

이 만들어줘서 고마워서 운데요.^^

인호.. 이곳에서 많이 놀림받고 힘들었거든요.

쉼터에서 늘 방방뛰던 녀석이 진중해졌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변화에 조금 염려도 되지만 좋으네요.

그럼 같은 세계를 보고 왔다고 그리고 세상이 크더라고 이제 다르게 살거라고

독일 다시 갈 수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독일에 다시 가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말하는 인호를 보면서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 뿐입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 청주지역 아동센터 김혜련 수녀 드림

‘지금, 나를 만나러 갑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음회관 청소년 30명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기 위해 제주도로 3박 4일간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남녕고등학교 비장애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한 또래관계 형성, 자전거 하이킹을 통한 어려움 극복,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감이 더해질 때마다 사진기에 자신의 모습을 담아 '자신감 앨범'에 사진을 한장 한장 채워갔습니다. 때로는 자신 없거나 화가 나거나 후회되는 자신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 없는 나와 이별연습도 하면서 당당한 나로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의 사진들로 앨범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나에게… 안녕? 나는 제주도에 있는 나야. 제주도에 있는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지. 난 알 것 같아. 실패를 맞보지 않으면 성공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서울에 있는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봐! 너는 인생에서 지금도 최고의 주역이니까.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나를 기대할게~”

아이들은 제주도의 파란바다를 바라보며 비록 파도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 속에 넓고 광활한 바다의 모습을 담고 용기와 자신감을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당당한 나를 품고 아이들은 내 삶의 주인공으로 돌아옵니다.



7. 내일의 주인공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교육영역

LEXUS

2006 Lexus Dream-Plus Scholarship

한국요리사협회

2006년도 렉서스 꿈더하기 장학증서 수여식

한국요리자동차·이름다운재단



“개천에서 용났다!”

올 한해 우리사회에서는 월 최소 2개 이상의 장학재단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장학재단은 1,800여개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학재단외에도 수 많은 기업이나 학교, 단체등에서 진행하는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학사업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기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가난은 그 다음의 문제로 고려됩니다.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이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입니다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직도 고등교육은 권리가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난으로 인해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어찌보면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억울한 일이고, 슬픈일이 됩니다. 미래의 경제적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육지원은 성적 순위로 주는 '상금'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탱하는 '희망'의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개천에서 용을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나는 개천에서 낚기에 여전히 개천에서 산다”는 “나는 개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절망을 견어내기 위함입니다.

이제 아름다운재단의 사업도 여섯해를 맞이하여 지원을 받은 장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는 즐거운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재단에 1%를 나누는 새로운 기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여러분의 투자가 우리 사회 또 다른 희망을 낳는 아름다운 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① 공돌기금

- 기금개설 _ 2003년 12월
- 지원내용 _ 저소득 실업계고동학생 3학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취업컨설팅
- 배분내역 _ 총 21,145,200원, 10명

② 김군자할머니기금

- 기금개설 _ 2000년 8월
- 지원내용 _ 보육시설 퇴소 대학생 및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배분내역 _ 총 53,690,870원, 11명

③ 신성아연지 한길기금

- 기금개설 _ 2004년 6월
- 지원내용 _ 보육시설 퇴소 대학생 및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이공계열) 등록금 전액 지원
- 배분내역 _ 총 27,194,100원, 6명

④ 메가스타디가금

- 기금개설 _ 2001년 12월
- 지원내용 _ 보육시설퇴소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배분내역 _ 총 11,943,000원, 3명

⑤ 대덕테크노벨리가금

- 기금개설 _ 2004년 4월
- 지원내용 _ 대전 출신의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혹은 보육시설 퇴소를 앞둔 학생 한 학기당 200만원
- 배분내역 _ 총 12,000,000원, 3명

⑥ 엑서스꿈더하기장학금

- 기금개설 _ 2005년 7월
- 지원내용 _ 저소득 가정 고동학생의 분기별 등록금과 학업보조금
- 배분내역 _ 총 89,000,000원, 45명

⑦ 징검다리기금

- 기금개설 _ 2005년 1월
- 지원내용 _ 저소득 빈곤가정 고동학생 장학금 지원
- 배분내역 _ 총 39,700,000원, 25명

⑧ 온스타푸른별기금

- 기금개설 _ 2004년 6월
- 지원내용 _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의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학업보조금 지원

• 배분내역 _ 총 51,200,000원, 37명

⑨ 아피간헨츠 단기연수지원 (기금이 아닌 자원사업)

• 기부 _ 2005년 7월

• 지원내용 _ 아름다운재단 지원 대학 장학생 해외 단기 어학연수 지원

• 배분내역 _ 총 4,555,502원, 1명

⑩ 아홉드리기금

• 기금개설 _ 2004년 3월

• 지원내용 _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중 성적우수자의 장학금 지원 / 대학입학 경우 대학년간 등록금 지원

• 배분내역 _ 총 15,300,000원, 8명

⑪ 주경아독

• 기금개설 _ 주경아독기금 (2003년 2월)

• 지원내용 _ 근로 및 학업을 병행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

• 배분내역 _ 총 20,250,500원, 7명

⑫ 현대모비스기금

• 기금개설 _ 2003년 5월

• 지원내용 _ 교통사고 유자녀 저소득 고등학생 등록금 및 학업보조금 지원

• 배분내역 _ 총 87,100,000원, 44명

⑬ 현대천사랑기금

• 기금개설 _ 2002년 12월

• 지원내용 _ 교통사고 유자녀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배분내역 _ 총 32,637,400원, 10명

⑭ 제스프리 희망열매기금

• 기금개설 _ 2005년 11월

• 지원내용 _ 농어민 중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 배분내역 _ 총 18,000,000원, 12명

⑮ 하라기금

• 기금개설 _ 2004년 3월

• 배분내역 _ 총 47,442,650원

• 지원내용 _ ① 소외 아동(초등학교 4-6학년)의 특기교육 및 정서안정 지원

② 보육시설 지원 - 데레사의 집, 한양탁아소

③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풍요로워지는 세상의 선두주자’

“안녕하세요. 장학생 김미경입니다.

장학금은 아주 감사하게 등록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따름입니다.

저도 은혜를 갚아야죠. 등록금 납입과 동시에 아름다운재단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부자로 등록도 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소액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져 더 많이 기부할 수 있겠지요. 남을 돕는다는 건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 지더군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며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들을 알게해 주셨습니다.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아름다운재단 간사앞으로 ‘김미경’이란 제목의 이메일이 한통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2006 주경야독 교육기금 장학생으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김미경씨는 현재 도박으로 많은 빚만 남기고 행방불명된 남편과 4살 박이 아들이 가족의 전부입니다. 힘든 생활의 연속이던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일거리를 찾았고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복지시설에 거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김미경 씨. 먼 훗날 미경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자신과 같은 엄마들이 아이라도 맘 편히 맡기고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라 말하기 많이 부끄럽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나누겠다는 미경씨를 통해 모두가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 주경야독 교육기금 장학금 선정자 김미경(가명)

8. 세 겹의 그늘 아래 여성가장 지원 사업: 여성영역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한 가족형태가 되었습니다. 여성이자 한부모가장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자녀양육, 생계를 책임져 나가야 하는 어머니들의 삶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거시설인 모자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모자가정은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현실이지만, 실제 모자원은 전국 41곳에 정원은 약 900여 세대라고 하니 그 부족함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 여성 가구주의 절대 빈곤층 비율은 21%인 반면 남성은 7%에 그쳐 여성가장의 빈곤 문제가 훨씬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보건복지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2달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 여성가장중 임시 일용직 비율은 82.2%를 차지했고, 월소득이 82만원이하가 전체의 74%로 여성 가장 상당수가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로빈곤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불안정한 생계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래도 일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하기에 건강은 뒷전인 어머니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 가난한 한부모 여성 가장인 어머니들의 건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병의원과의 협력하여 저소득 여성가장들의 건강검진과 질병발견시 치료비용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술교육과 소자본 창업지원을 통해 자립의 터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네들, 어머니

① 저소득 여성가장의 건강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여성가구의 건강검진과 발병시 치료비 지원
- **기금** _ 당신의 햇살기금(2002년 5월 개설), LG생활건강 행복미소 기금(2005년 4월 개설), 한국의학연구소(KMI) 건강검진 진료 기부(기금을 통하지 않은 기부)
- **배분내역** _ 총 231명, 총 149,945,171원

②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_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
- **기금** _ 아름다운세상 기금(2003년 6월 개설), 아철헤어커커 기금(2002년 4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5명, 5개 점포 총 242,834,778원
- 희망가게 창업지원 및 창업주 여성가장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위한 여행프로그램 지원
 - 희망가게 6호점 - 헤어컬러리(마음살)
 - 희망가게 7호점 - 피자명 사당점(피자배달전문점)
 - 희망가게 8호점 - 개인택시
 - 희망가게 9호점 - 드림피아(재활용품체)
 - 희망가게 10호점 - 느루(부대찌개전문점, 2인 공동창업)
 - 희망가게 11호점 - 어울림김밥(분식점)
-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 44인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교육 및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 이마용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 4명
이마용 교육 전문 학원 '아름다운사람들' 과 연계하여 이마용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사람은 저마다의 재능이 있습니다.

기업도 기업이 가진 기술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곤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 어찌 보면 더욱더 값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한 부모 여성 가구주의 건강검진을 통해 여성 가장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건강검진전문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200분의 건강검진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처음 전국의 한 부모 여성가장님들을 지원하시겠다고 약정하시면서 재단에서 필요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을 하면서 총 290분이 신청을 하셨으며 지원 대상자격 (한 부모여성가장,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3년 동안 노동활동하신 분) 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니 총 231분이었습니다.

31분을 어찌 하여야 하나 실무자는 가슴으로 서류를 끌어안고는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다 조심스레 한국의학연구소에 31분을 더 지원해드릴 수 있느냐는 제안을 드렸으며 흔쾌히 지원을 수락해주셨습니다.

처음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분들의 마음.... 그리고 지원받으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모두 예약해주시며 센터의 전 직원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친절히 검진해드리라는 당부 를 주시며 지원받는 어머니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그분들의 마음...

그것만으로도 여성 한 부모 여성가장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가게에서는 희망이 자랍니다

이운정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노점상, 식당, 파출부 등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대로 해오셨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두 아이의 생계를 도맡아 책임져야한다는 캄캄함 속에서도 어머니는 본인이 일해야 아이들과 생활해갈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갚을 수 없는 부채와 신용불량이라는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일을 해오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4년간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소득이 늘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언젠가는 본인만의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대형 운전면허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폐자원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지게차와 트럭을 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꿈,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차근차근 독립을 준비해나가던 중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세상기금 지원사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원공지가 나가기 몇 달 전 꾸준히 전화로 상담을 하시며 신청서류들을 준비해 제출, 드디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남의 빈 땅에 컨테이너 하나를 꾸미고, 폐자원을 모으며 두 아이와 생활해야 하는 어머니이지만,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임대받은 땅의 한 칸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텃밭도 가꾸실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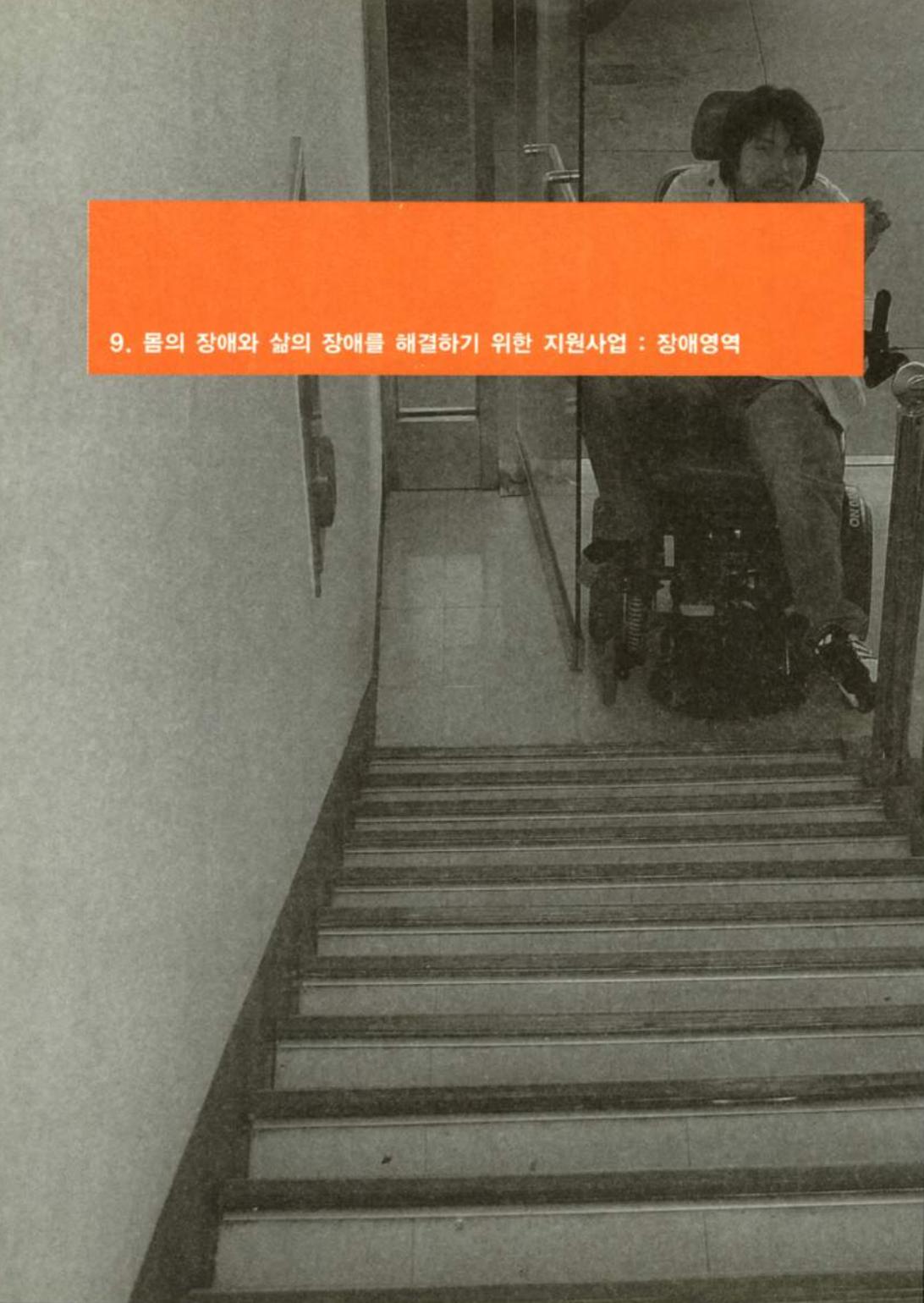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미재연을 시작으로 하여 8호점까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었으나, 희망가게 9호점 드림피아는 지방에 지원된 첫 사례입니다.

드림피아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희망가게 9호점 드림피아 개업식에는 (주)태평양 기업문화실 박상철 상무님과 아름다운재단 윤정숙 상임이사님, 한국 사회에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김원(주) 박상진 대표님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인사들이 모여 첫걸음을 축하하는 마을잔치를 벌였습니다.

폐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 이운정 어머니는 오늘도 1톤 트럭에 희망을 한 가득 싣고 달립니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person in a wheelchair positioned on a staircase. The person is looking towards the camera. An orange rectangular box is superimposed over the upper part of the image, containing white Korean text. The background shows the concrete steps of the staircase and a wall on the left side.

9. 몸의 장애와 삶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 : 장애영역

우리사회 재가장애인 수는 2,101.1천명 추정,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47.6천명, 출현율은 4.59%, 총 2,148.7천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8백만명임을 생각하면, 10명중 4명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몸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장애인인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사회현실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몸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됩니다. 활동이 제한되기에, 공간이 제한되기에 장애인들이 숨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몸의 장애에서 나아가 삶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체험이나 여행에서부터, 사회활동 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편의시설이나 사회적 인식, 정부의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그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선거참여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삶의 장애가 무엇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바뀌어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거참여가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장이 접근조차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의 투표장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문화가 개선되기를 꿈꿔 봅니다.

장애인 한 명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위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① 장애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장애청소년에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 **기금** _ 송진우 기금(2002년 9월 개설), 행복한 동행 기금(2004년 12월), 희망네트워크 기금(2005년 12월)
- **배분내역** _ 총 4,500,000원, 12명

② 장애인의 선거참여 및 이동편이 제공 사업

- **지원내용** _ 장애인의 선거참여 및 이동편이 제공
- **기금** _ 송진우 기금(2002년 9월 개설), 행복한 동행 기금(2004년 12월)
- **배분내역** _ 총 43,816,980원

사업명	지원단체	지원내용
투표장 가는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장애인선거참여활성화프로그램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장애인위풍당당희망을 던지다
	양천자립생활센터	(발)공(역)을(약) 채우기
	우리아웃자립생활센터	장애인소중한 한표를 할수 있는 장애인 정치참여지원사업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선거참여 환경조사 및 선거참여의 이해를 통한 참정권 행사 유도 선거지원프로그램 장애인주인의식으로 참된 일꾼찾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53지방선거 우리도 한표의 권리가 있다
	충북교육문화연대 다사리	장애인선거학교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53지방선거장애인선거참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53선거홍보 및 이동편이제공
	경북지체장애협회상주지회	중증장애인의투표를 위한 차량이동서비스 프로그램

③ 장애아동 치료 지원

- **지원내용** _ 뇌성마비 장애아동 보톡스 시술 및 재활치료 지원
- **기금** _ SKT아름다운 통화기금(2003년 11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58명, 총 45,827,354원

④ 장애아동 청소년의 여행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장애아동 청소년의 여행 지원
- **기금** _ 임흥길의 길사랑 기금(2005년 8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9,846,830원, 2개 단체 / 청음회관 : "용기 100배! 당당한 나를 만나는 여행", 충주심심맹아원 : 세상속으로..

38년 만의 투표

20년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 나오신 어느 장애인이 처음으로 투표하던 날 가슴이 무척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그 기분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5·31 지방선거를 맞추어 장애인분들이 편히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전국의 총 10단체에 차량 65대와 혼자서는 투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437분의 투표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있기 전에 투표장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장애인분들이 직접 확인하며 투표장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기도 하고 지역의 선거관리 위원회와 모의투표 시연회를 통해 투표를 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해 많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하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출을 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어느 후보를 자신의 손으로 선택할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도 주민으로써 당연히 투표하는 자신이 참 좋다고 합니다.

투표장 가는 그 길은 언제나 평등한 길이였으면 합니다.





10.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지원하는 사업 : 노인영역

모든 젊은이는 미래의 노인입니다

올해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3.2%로 지난해에 비해 0.6%p 증가했습니다. 10년전인 1996년 8.6%에 비해서는 4.6%p 올랐습니다. 이제는 7.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통계청 발표 '2006 고령자 통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6만명을 넘으며 그중에 독거노인은 78만명이 넘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홀로 사는 독거노인 인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이러한 어르신들을 다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자체를 가능케하고, 우리가 누리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해준 어르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또한 모든 젊은이는 미래의 노인이듯이, 우리 사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은 우리 자신에 대한 보살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직 제도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부양하지를 않아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무사히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듯한 국을 끓여 배달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① 독거노인 생계비/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독거노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 기금 _ 태평양제약 홀로사는 노인지원 기금(2003년 4월)
- 배분내역 _ 총 23,677,820원, 19명

② 독거노인의 겨울나기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국배달 지원
- 기금 _ 태평양제약 홀로사는 노인지원 기금(2003년 4월), 은빛겨자씨기금(2003년 1월), 마이너스 건강 기금(2003년 2월)
- 배분내역 _ 총 101,273,654원, 1301명 지원

③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치매가정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기금 _ HHC 사랑나눔기금(2004년 8월)
- 배분내역 _ 총 19,890,000원, 18가구



할머니, 따뜻한 국 배달 왔습니다

구비 구비 골목길을 조심스레 올라가다 숨이 턱까지 차 오를 때 작은 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은 작은 지붕아래 다다다닥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 집 한가운데 방하나 홀로사는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날이 좋은 날은 곧잘 마실 나가며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복지관으로 무료급식을 먹으러 가시곤 하였는데 겨울이 되면 시큰거리는 무릎이 아파서 밖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 조차도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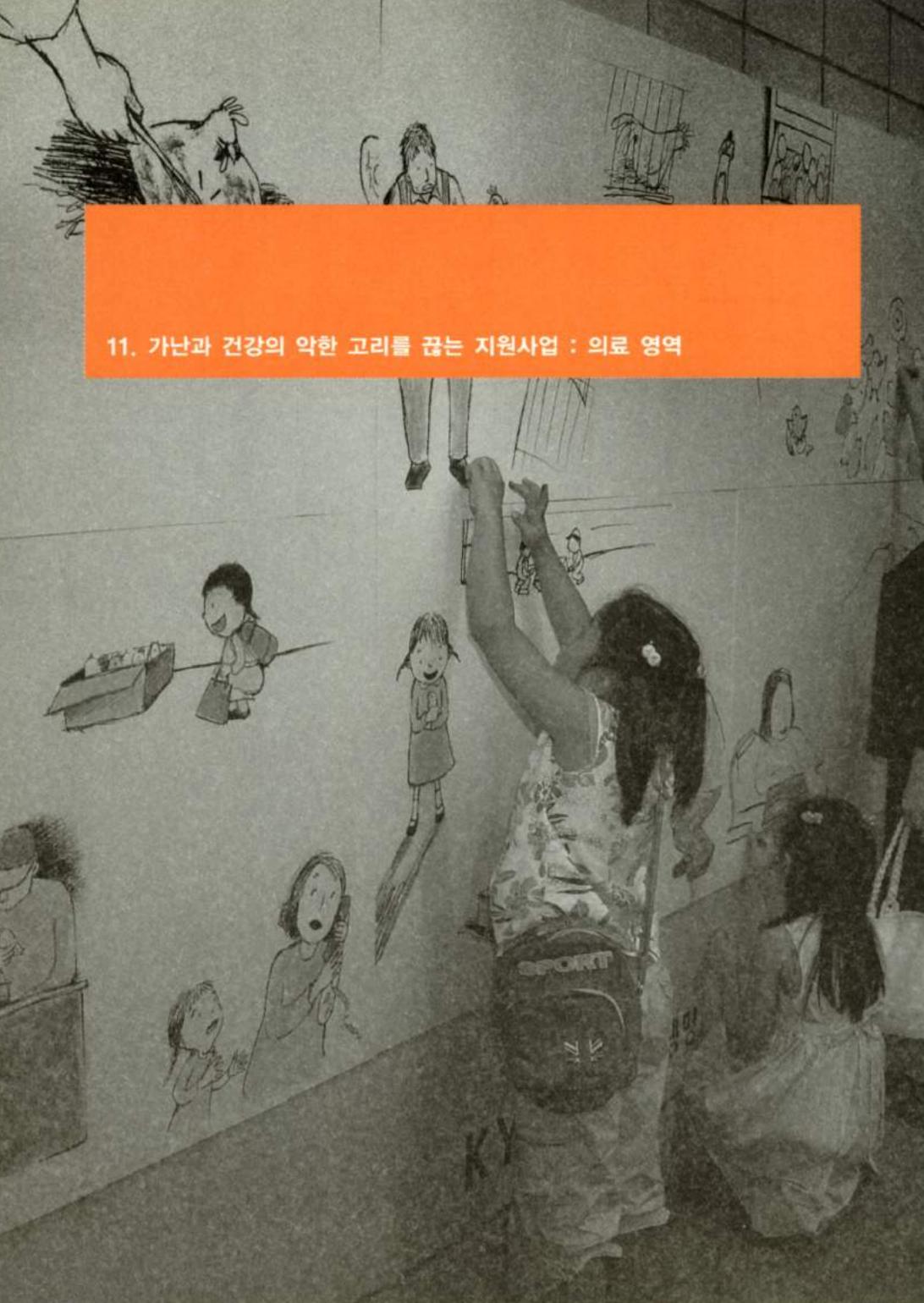
전국의 총 16개 단체를 통하여 총 1301분의 어르신들에게 4개월 동안 국을 직접 배달해드렸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 특히 좀 더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을 조리하시는 분들을 지역의 저소득층의 분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시며 자립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직접 조리를 하실수 있도록 하여 수익금을 지원 하였으며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국을 지원하여 국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지원하고 국을 드시는 분들도 지원하도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돈이 2배의 값어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졸린 눈 부비며 국을 만드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 하루 종일 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다가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따뜻한 국도 주고 이것저것 살갑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 외롭지 않은 앓다고 합니다.

할머니.... 따뜻한 국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patterned sleeveless top and a backpack with the word "SPORT" on it, is drawing on a wall. The wall is covered with various sketches, including a rooster, a person in a suit, a person in a cage, a person with a box, a girl, a woman on a phone, and a child. The scene is dimly lit, and the woman is the central figure, actively engaged in the drawing process.

11. 가난과 건강의 악한 고리를 끊는 지원사업 : 의료 영역

가난과 건강은 '세습' 되는 동시에 물고 물리는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는 제대로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의료비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의료문제가 중산층과 준빈곤층을 완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5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345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줄면 '아파도 참는다'는 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2명은 빚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영역에서의 소원접수를 통한 치료비 지원, 여성영역에서의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의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치과 진료 및 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돈이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①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 미숙아 출산 가정의 치료비 지원, 미숙아에 대한 정부정책 견인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 **기금** _ 교보생명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 기금(2004년 9월)
- **배분내역** _ 총 348,490,034원, 109명

② 저소득층 치과진료 및 치료 사업

- **지원내용** _ 장애인, 이주노동자,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함께 치과진료 및 치료 지원
- **기금** _ 건강한 이 세상 기금(2002년 개설)
- **배분내역** _ 총 30,000,000원, 20개 지역

지원사업 후기

돈이 없다고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10명중 1명은 미숙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몸으로 태어나도 초기 치료만 제대로 받는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치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새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가난한 이들에게 강요되는 선택입니다.

한 이른둥이 어머니의 편지

첫 인연을 맺었을 당시에는 900이의 망막증 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눈물로 보냈었는데, 1년 후 산타복장을 하고 방문해주신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여러분들의 축복과 사랑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견하게 잘 자라는 900이가 눈물 나게 고마운 요즘이에요. 산타 봉사자분들의 멋진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고, 특히 900이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900이가 모진 고생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잘 자라주니 엄마로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값진 사랑의 힘으로, 2006년도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23일 900엄마

기부자님들과 함께 만든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이 함께하는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사업에 힘입어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이른둥이(미숙아) 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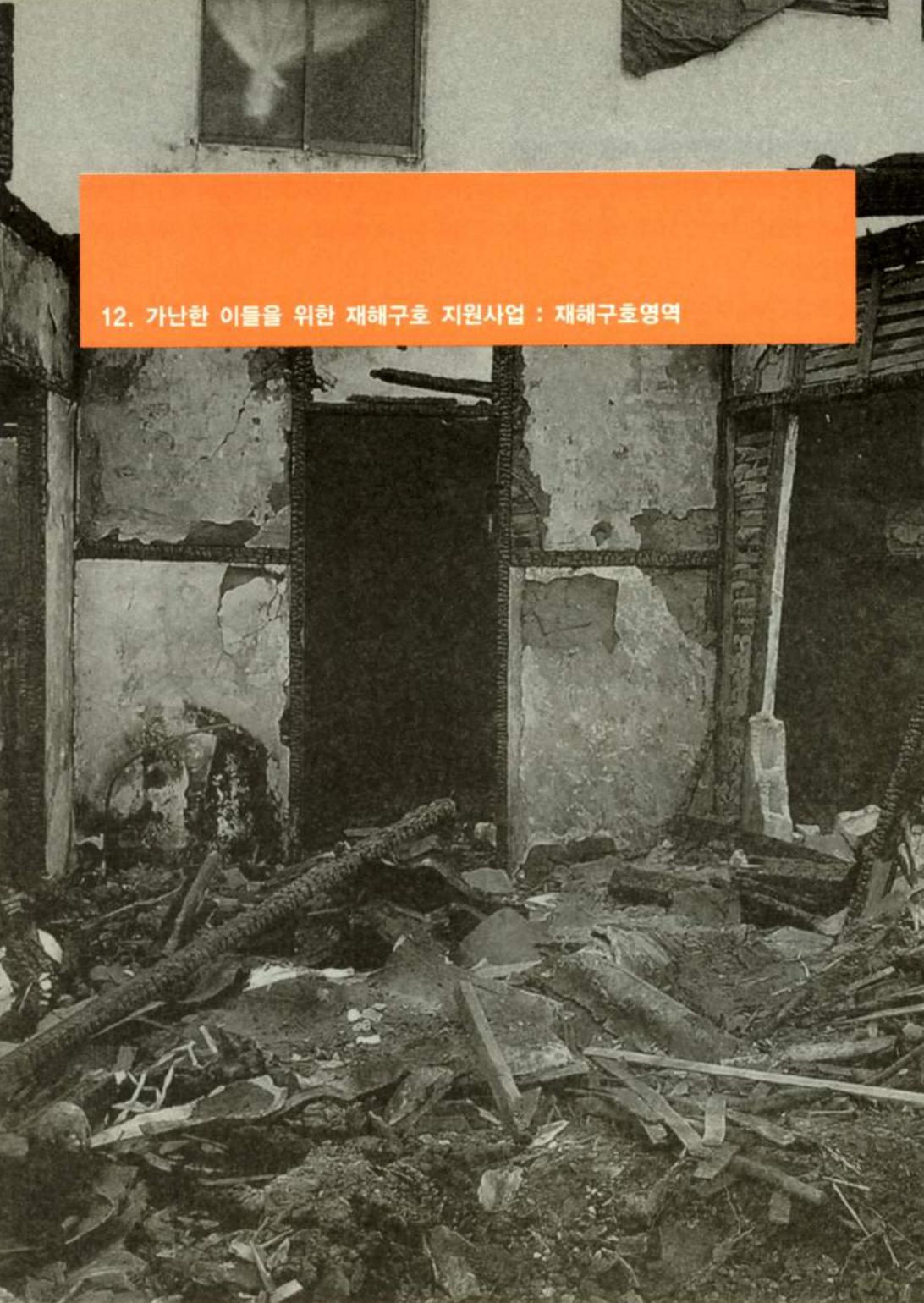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의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힘써 정부의 긍정적인 제도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예산이 2배정도 증대되어 더 많은 아기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세부 사항은 연말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해도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십시일반 힘을 모은 여러분의 나눔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아름다운재단은 시혜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영역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기부자님들의 나눔으로 우리사회 작은 변화를 일구어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재해구호 지원사업 : 재해구호영역

재해는 소리소문없이 찾아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순간,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막막한 상황의 이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남게 됩니다. 우리사회가 겪어왔던 대형참사의 피해자들은 오래동안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재해의 순간에 필요한 긴급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많은 재해구호 과정에서 보여진 문제점들, 풀릴 수 있는 가스나 도구도 없는데, 라면만 배포가 되는 식의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물질적 지원은 긴급하게 시행하되, 실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와 욕구파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풀뿌리 공익단체들과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해구호 사업을 대상자의 욕구파악에 근거한 긴급지원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탈피하여 시간이 흘러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슬픔, 그 마음 함께

① 재해구호 지원 사업

- **지원내용** _ 재해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재건 지원
- **기금** _ E-아름다운기금(2003년 2월)
- **배분내역** _ 229,966,467원
- 서문시장화재 피해자 24명 등 개인재해 피해자 총 47명 지원
- 폭설 피해 시설 지원 2곳
- 재해 피해자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위한 단체지원
 - 한강성심병원 <어린이 화상환자의 사회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와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대구가족치료센터 <재난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위기상담원 교육>
 - 서울네러티브연구소 <평창수해 어린이피해자 설문조사>

지원사업 후기

갯잎 두 줄

‘따르릉~’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입니다.’

‘장마가 시작 됐어요~’

매년 여름이면 단골손님처럼 찾아 오는 장마와 태풍... 그와 함께 우리의 우려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오는 홍수, 침수들... 매년 피해가 일어나는 곳에서 반복적인 피해가 일어납니다. 물난리가 날 때마다 모이는 성금은 다 어디 갔기에 몇 년 전 피해에도 아직도 복구도 안 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오늘 방문한 김칠수(가명) 아저씨 댁.

며칠째 오는 빗속을 뚫고 찾아간 아저씨 집은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에나 나올 듯 한 덩그러니 홀로 서있는 시멘트 집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 탓에 차가 들어갈 수 없



어 몇 미터를 걸어 도착한 아저씨 집은 멀리서 볼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은 이미 바깥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서 일부 천장이 내려앉은 방은 벽과 지붕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고 방 한 가운데는 커다란 고무 대아가 놓여져 이미 빗물이 차서 넘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수리를 해야겠구나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온통 정리되지 않아 복잡한 풀밭인데 집 앞 마당에 정말 조그마한 두 줄의 풀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풀이 아닌 깻잎이 아닌가...

웬 깻잎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추천기관 팀장님께서 궁금증을 풀어주십니다.

“아저씨께서 얼마 전에 건강의 문제로 자활근로도 그만두시게 됐는데다가 강풍으로 인해 지붕마저 무너지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아름다운재단에 아저씨 추천서를 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있다 다시 와 보니 이렇게 텃밭도 가꿔 놓으셨습니다.”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희망’의 메시지였다면 보은에는 김철수 아저씨의 깻잎 두 줄이 ‘희망’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소식도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자포자기의 심정을 털고 일어나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당에 작은 텃밭까지 가꾸셨을 아저씨를 상상해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희망이고 싶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누군가에게 다시금 삶의 희망을 더할 수 있는 일!



2006
Beautiful
Concert

13. 문화 복지지원 사업 : 문화영역

감동과 행복을 나눕니다

문화적 소외 속에 살아가는 그늘진 이웃에게는 문화나눔도 복지입니다.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공연장에 외본 적 없는 장애인, 방학이라지만 그들이 한번 제대로 못한 아이들, 가난하기 때문에 문화체험을 위해 비용지출은 엄두를 못내는 이들, 늘 야근과 박봉으로 문화체험은 엄두도 못내던 풀뿌리 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도 문화체험이 필요합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농어촌, 산간지역에 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문화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교통비 그리고 마음먹고 결심을 해야 다가갈 수 있는 일입니다. 대도시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대형서점이나 도서관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문화체험은 단순한 유희나 오락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보고 배우고, 느끼는 만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 공연단체, 극장 등을 섭외하여 티켓과 좌석을 기부받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눔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를,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문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문고를 지원하여 독서의 용이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미소를, 기억에 남을 감동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① 마을도서관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소외계층 도서와 도서컨텐츠 및 독후활동 지원
- **기금** _ 혼자만살살은무슨재민거기금(2002년 12월 개설)
- **배분내역** _ 총 16개 단체, 총 74,490,525원
- **지원단체** _ 꿈나래문고, 마이성결문고, 횡성쌀보리도서관, 청양문고, 갈릴리문고, 나눔마을도서관, 자원봉사활동비및헌편제작, 아르헨티나 한인학교, 나주부영도서관, 책놀이터, 더불어숲, 오래된숲, 난곡주민도서관, 어린이도서관꿈틀, 밤토살아린이도서관, 벌교원동공부방, 빈곤통이도서관

② 지역문화 날개달기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지역의 문화소외 아동, 청소년에 문화체험 지원
- **기금** _ 꿈꾸는 나무기금(2004년 3월 개설), 행복한 염표 기금(2003년 9월 개설)
- **배분내역** _ 229,966,467원, 고예지역아동센터, 석성중학교 지원

③ 문화나눔 사업 (기금지원이 아닌 지원사업)

- **지원내용** _ 저소득층의 문화체험을 위하여 티켓을 기부받아 지원
- **배분내역** _ 총 307,628,900원 / 75개 공연, 126회 / 5,194단체 (40,731명)

기부공연

2006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2006 나비효과 展(with 서울임시정부), 2006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2006 인터내셔널 댄스 미팅 위해, 가족연극 '그림자 그림자', 가족연극 '하루이야기', 겨울의 노래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정가공연 '2006엄마와함께하는 국악보따리', 국립극단 '귀족놀이', 국립극단 특별공연 '어느 계단 이야기', 국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어린이무용극 '꿈꾸기보여주는요절복통', 국악뮤지컬 '남만류만 사랑해', 김자숙의 '로젤, 나의 결혼 원정기, 낙/타/ 콘서트', 난 타, 대니얼 색소폰 콘서트 'Dreams of Heaven', 도깨비 스톱, 마르고달도록, 맹진사택 경사, 명계남 모노드라마 '콘트라베이스', 무용극 '매화, 창에 어리다',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뮤지컬 '터널', 뮤지컬 '브루클린', 뮤지컬 '안락의 여정', 박근지/이효숙 피아노 joint recital,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반쪽이의 고를자연사박물관, 백남준 스튜디오의 기억-메모라빌리아(Memorabilia), 벅스(주) 3개월 이용권, 사랑은 비를 타고,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여성영화제, 송승환의 교육극시리즈 '명작동화 그림자극', 쇼 뮤지컬 '2006 핑키핑키', 슈퍼키드 단독 콘서트,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숙, 아시아 문화동반자 특별공연 '아시아, 우리들의 향기', 안녕 Korea, 앙상블 플라네타 내한공연, 애니깽, 양희경의 늙은창녀의 이야기, 어린이 경제뮤지컬 '채크와 요술 저금통', 어린이 고궁학교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뮤지컬 '노노이야기',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 어린이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 성장뮤지컬 '놀음의 소원', 어린이 체험 과학 뮤지컬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여성인권영화제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연극 '바보', 영화 '모노폴리', 외 단신이 잠든 사이, 오즈세컨 초창 Fair Play Korea 어린이스포츠클럽, 왕의 남자 사사회, 우리음내, 위트 앤 비트,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콘서트, 지하철 1호선, 창극 '장끼전', 코리아환타지 2-비원의 아침, 콘서트 드라마 '길 위에서...', 콰르텟엑스(Quartet-X) 겨울콘서트 '눈꽃 세레나데', 타루의 제10회 낙타 콘서트, 판소리 '춘향가', 패션 오브 더 레일, 플라워 콘서트 'Diary', 한국가요제, 홍성은 크로스오버 콘서트, 흙과 물이 만나요, 흥부놀부, Acid Rain Focus & Wide', ING생명과 함께 하는 'SIMPLY the BEST 06 콘서트', Soul, 해바라기

‘난타’를 보고

어제의 감동과 추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말 설새없이 웃고 박수치고 호호했던 우리의 기억이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수도권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 사는 우리들 열두명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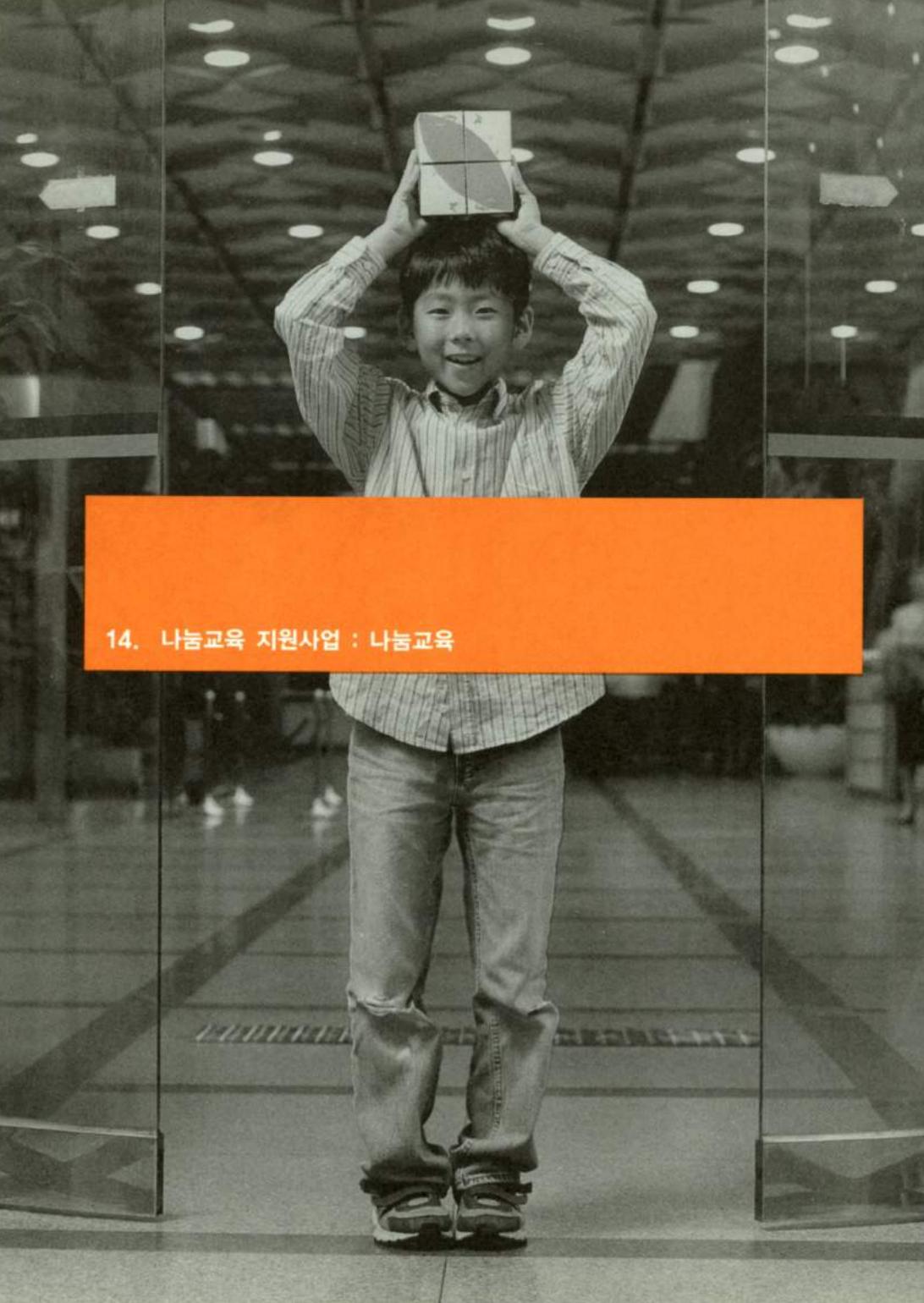


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우리들은 아직 한국에오니 1년도 채 안된 새댁들이입니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치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지만 외국인비전센터에서 일주일 5일 한국어공부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꼴로 들살이를 하는데, 이때 무척 설레입니다.

난타공연을 보러 간다는데 무척 궁금했습니다. 난타 공연이 무엇일까? 한국어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하려 애쓰셨지만 어제 공연을 통해 말이 필요없는(년버벌 퍼포퍼먼스이기도 하지요 ^^) 공연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사람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유명한 공연이었어요.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었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지르고, 배우들의 멋진 동작에 탄성을 자아내었습니다. 공연 마지막 서비스로 던져준 공도 2~3개씩 가져갔습니다.

며칠간 더위로 힘들었는데,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준 하늘과 좋은 공연기회를 준 아름다운재단 문화나눔, (주)PMC 프로덕션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국생활에 잊지 못할 기쁨과 경험을 한치나 더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외국인비전센터에서



14. 나눔교육 지원사업 : 나눔교육

지난 여름 27명의 초등 교사들이 모여 하루에 12시간이 넘도록 열심히 세미나를 듣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5일에 걸쳐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다양한 현장으로 나아가 보고 들으셨습니다.

이들은 나눔교육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은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힘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날 아이들과 함께 할 교육을 꿈꾸며 희망이 커갑니다.

이런 교사들이 있기에, 아이들은 나눔을, 봉사를 당연하고 즐거운 것으로 이해하며 자라갑니다.

나눔의 꿈을 꾸는 교사들이 나눔의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는 나눔의 꿈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나눔의 세대가 자라갑니다.

나눔교육으로
나눔의 세대를 키웁니다

2006 나눔교육 현황

구분	일시	인원	장소
교사대상	어름연수	2006.7.24-7.28(5일간)	28명 서울
	워크샵	2006.4.8(1일간)	36명 서울
		2006.10.28(1일간)	24명 대구
	연구회	매월 2회 지속적 실시	10명 서울
어린이/ 청소년대상	나눔캠프	2006.8.9-8.12(4일간)	63명 경기도 화성
	나눔체험프로그램	2006.7.31-8.2(4일간)	8명 서울
나눔다이어리/ 나눔저금통	나눔교육교재	2005년 9월부터 배포	7만권/7만개 배포 : 2백여학급 및 기타 나눔교육참여자 전국



| 사례 1 | 아름다운 휠체어

2006년 6월 최병훈 선생님이 담임하고 계신 두레학교 어린이들은 장애우 친구들을 위한 베품시장을 열고 그 기부금을 모아 휠체어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휠체어는 다리가 아픈 한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전달되어 이제 그 아이의 다리가 되어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 나눔으로 하나된 학부모회

송파초등학교 5학년 3반, 5학년 3반 어머니들은 마음을 모아 부모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나눔교육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것과 자기 자신부터 나눔을 실천하시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지요. 현재 나눔회 어머니들을 격주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재단으로 돌아온 첫 번째 나눔저금통

나눔저금통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나눔저금통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키워주라는 특명을 받고 지난 9월 초등학교로 파견되었던 나눔저금통 중 하나가 불룩하고 무거워진 몸집으로 다시 아름다운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름다운재단을 찾아온 나눔저금통은 동광초등학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난 11월 11일과 14일에 있었던 동광초등학교 2학년 3반의 재미있는 나눔장터 덕에 아주 배가 불룩해져 다시 아름다운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룩해진 나눔저금통은 동광초 2학년 3반 고서래 어린이가 고이 들고 와 아름다운재단에 전달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동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눔저금통에게 특명을 내렸다고 하네요. 어린이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오라구요. 이번에 돌아온 나눔저금통에 모여진 성금 47,800원은 동광초 2학년 3반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 분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눔저금통이 아름다운재단을 떠날 때와는 달리 예쁘게 단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달아 준 예쁜 종이 코스모스를 달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코스모스를 단 나눔저금통은 한결 더 밝아진 모습입니다.

한편 동광초등학교의 전성실 선생님은 더 기쁜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동광초등학교에서는 더 많은 나눔저금통들에 작은 정성들이 매일매일 모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2학년 3반 친구들의 나눔실천은 앞으로도 계속되기에 이번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아름다운재단 해외 모금전문

15. 모금노하우 지원 사업 : 해외모금전문가 초청 모금워크샵



“좋은 일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할 때 돈이 더 많이 듭니다”가 더 정확한 말이지요. 세상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탄광촌에서, 농촌에서, 대도시의 달동네에서, 지리산에서, 제주도에서,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공익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단체들이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어려워서 오늘도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단순히 기금지원을 통한 배분사업을 넘어서 많은 풀뿌리 공익단체, 복지단체가 스스로 기부자, 후원자들을 통해 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해외의 모금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들의 모금 노하우를 배우고 또 함께 연습도 하면서 모금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모금학교”를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째. 2005년에 처음 시작한 풀뿌리 모금학교는 지역의 작은 공익단체부터 대형 모금단체들까지 꼭 한 번은 듣고 싶어하는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의 작은 촛불이 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물고기 열 마리보다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모금워크샵의 역량있는 강사, 김 클라인(Kim Klein)과 헬렌 김(Helen Kim)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풀뿌리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0여 년간의 현장 모금 경험과 컨설팅, 강의를 통해 다져진 최고의 역량을 한국의 시민단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 클라인 (Kim Klein)

- ▷ 격월간지 Grassroots Fundraising Journal 대표 <http://www.grassrootsfundraising.org>
- ▷ "사회변화를 위한 모금 (Fundraising for Social Change)"의 저자
- ▷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고액모금 기법의 대가
- ▷ 현재 미국 전역 및 세계 16개국에서 모금 강연 및 워크샵 진행
- ▷ 2005년 아름다운재단 해외모금전문가 초청 워크샵 강연자



헬렌 김 (Helen Sunhee Kim)

- ▷ 2004 기빙코리아 심포지엄 초청강연자
- ▷ 비영리조직 및 조직발전, 모금 전문, 리더십 개발 컨설턴트
- ▷ 현재 The Grassroots Fundraising Journal, Building Movement In(to) the Nonprofit Sector Project, Korean Youth Cultural Center 이사
-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사회복지 대학원 강연
- ▷ Working Woman Award, Sundata Acoli Freedom Award 수상
- ▷ 2005년 아름다운재단 해외모금전문가 초청 워크샵 강연자

-
- **자원내용** _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금 교육
 - **기금** _ 류우중기부문화도서관 기금(2000년 8월 개설), 연구소 기금
 - **배분내역** _ 23,210,000원 (2005년 70명, 2006년 60명)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안녕하세요!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심미화라고 합니다~

지난번 모금워크숍 참석으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간사님들 교육자료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다과까지 신경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재단의 간사님들 모두 친절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재단의 이미지가 밝고 긍정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와 워크숍때 받은 자료는 저희 임직원 워크숍 때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최하는 유익한 교육이 있으면 또 참석하고 싶





네요^^

좋은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여러가지 도움을 얻게 해주
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행사
들에 다녀보고 또한 준비를
해봤지만, 성실하게 준비하
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를 내
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단체들의 사업들과 모금과
관련된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더 좋은 전략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른 단체의 분들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워십
내용들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의 세
미나에서 고쳐야할 모금을 요청하는 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고, 비록 구체적인 적용점이 다르긴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의 후원사역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사명에 대한 부분이나, 후원자들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후원도
그냥 아무 계획없이 하는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
도..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강의중에 각 단체의 사례들과 참석자분들의 특
특 튀는 아이디어들 역시 후원사역을 해나가는데 귀한 자양분이 될 것 같아 은근히 기대
가 됩니다. 후원자가 많이 늘어나야할텐데요^^

아름다운재단이 아름다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아름다운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아름다운사람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일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힘내시
길 바라며.. 평안~입니다.

2006년 함께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재단 사업 이야기

1 청계천 “팔석담 희망 나눔” 행사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청계천 팔석담 주변에서 진행된 「나눔으로 희망 만들기」 “팔석담 동전나눔 이벤트”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청계천을 찾은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의 희망을 기원하며 ♥ 팔석담에 소망의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 즉석 사진을 찍어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은 ♥ 직접 기부함에 기부를 하고 받은 나눔 팔찌를 손에 차기도 하고, ♥ 나눔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

문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면서 나눔을 체험하고, 이웃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날 청계천에 나온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아름다운재단 로고가 새겨진 ♥ 희망 풍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재단 부스를 찾아 어린 자녀, 손자, 조카들에게 직접 기부를 해보도록 하고, 기부 행위와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많은 어른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의 희망을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 행사 중에는 기존의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멀리서 아름다운재단을 보고 일부러 찾아와서 격려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을 만나며 또 다른 기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수동의 이창식 기부자님은 이 날 행사를 위해 일부러 따님과 청계천을 나왔다고 하시며, 비타민 음료를 사다주시기도 하셔서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창식 선생님을 비롯하여 아름다운재단을 찾아주신 많은 기부자님과 일반 시민 여러분 덕분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거리에서 나눔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희망메시지》

"희망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

"희망은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

"희망~ 삶의 에너지"

"희망이란 삶의 밑천"

"희망이란 서로 사랑하기"

"모든 사람이 특별해지는 세상"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희망이란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희망이란 다 같이 웃는 것"

2 광주 처음자리 마음자리



습한 기운이 가시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면, 아, 이제 우리 지방 기부자님들 만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기부자님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재단 본관 2층에 마련합니다. '처음자리 마음자리'라는 따뜻한 이름을 가진 그 만남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단한 다과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재단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시는 기부자님은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분들입니다. 때문에 일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처음자리 마음자리'를 지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뵙기로 한 곳은 햇살을 닮았을 분들이 그득한 곳, 빛고를 광주입니다. 신청하신 분이 80분 남짓.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참석인원은 그보다 적겠거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시고 그 날 바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얼핏 보아도 100분은 넘어 보였습니다. 썰렁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행사를, 빼곡히 채워주신 기부자님들과 그분들의 넉넉하고 선한 웃음에 나만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광주, 처음자리 마음자리 인세를 기부해주고 계신 김용택 시인의 시 낭독으로 행사의 문을 열고,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까 싶어 짧게 정리한 재단 소개와, 맛깔나는 박원순 총괄상임이사님의 나눔에 대한 특강, 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지원 사례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1



부를 채웠습니다.

서울에서야 기부자님들 뵙는 행사가 잦고 그만큼 재단의 근황을 알릴 기회, 친근해 질 시간이 충분하지만, 처음 뵙는 광주 분들께 다사다난한 재단의 6년 걸음을 이야기 하려니 막막하기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굳은 결의를 한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기부자님들 모습에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행사의 끄트머리에 기부자님들께서 적어주신 나눔의 잎새를 그러모았더니 우뚝 선 나무 한 그루가 거뜬히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을이라고 잎사귀 떨구기에 바쁘는데, 나눔의 나무는 새 잎사귀가 무성하게 돋았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귀한 뜻 잔뜩 품은 파릇 파릇한 것으로,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나눔이라는 하나의 줄기에 함께 손끝을 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귀하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나눔이 잘 전달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습니다.

3 나눔의 가게 터줏대감들, 수락산에 오르다!

그동안 나눔의가게 기부자님들과 함께 시작한 등산모임이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첫번째 등산모임이 수락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키지만 나눔의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이창식 기부자님(성수동 구두센터), 외모에서 풍기듯이 신사답고 나눔을 남 몰래 실천 하고계시는 장기준

기부자님(무악동 장포토 스튜디오), 크신 손만큼이나 인정이 많으시고 항상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문인근 기부자님(전 대림동 숯불 닭 바비큐), 다방면에 박식하시고 아름다운재단 간사들에게 실무적인 부분까지 많은 도움 주시는 김형권 기부자님(개인택시), 시원시원한 성격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의종 기부자님(역곡 복사골 빼다귀 감자탕), 시인이자 나눔의 전도사인 김천중 기부자님(충무로 남향화원). 이렇게 여섯 분의 나눔의 가게 터줏대감들과 함께 만추의 수락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6일 일요일 오후 나눔의 가게 기부자님들과 수락산을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며 나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혼자 나누는 것 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일에 대해 나누는 것이 더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부자 여러분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나눔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세상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바라며, 등산모임 회장이신 김천중 기부자님이 나누어 주신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산행

김천중

제각기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나이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얼굴을 하나같이 아름답고 착한 것이 공통인듯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듯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나눔의 가게 회원들이 수락산 등산을 위하여
하나 둘 모인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합니다.
눈과 마음으로 대화를 할 뿐입니다.
대화 내용은 딱 한가지

어떻게하면 나눔의 가게가 더욱 활성화되어 아름다운세상을
앞당길 수 있겠는가 이었습니다.

가을의 곱게 물 들은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과도 같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 상임이사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막사이사이상 위원회는 박원순 총괄 상임이사가 오랜 세월 사회정의와 기업활동의 공정성, 정부 부패 청산, 관용정신 등을 위해 활동해온 점을 높이 사 수상자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이 상은 1957년 비행기 사고로 숨진 라몬 막사이사이 전 필리핀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고자 미국 록펠러 재단이 기부한 50만달러로 1958년 제정됐습니다.

한국인으로는 그동안 장준하(1962), 김활란(1963), 김용기(1966), 이태영(1975), 장기려(1979), 제정구·정일우(1986), 김임순(1989), 오웅진 신부(1996), 법륜 스님(2002), 윤혜란(2005, 시민운동가) 등이 수상했습니다.

박원순 총괄상임이사님은 배낭을 메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전국을 누빉니다. 그동안 인권변호사에서 참여연대를 이끄는 시민운동가로, 또 아름다운재단을 이끄는 나눔전도로 변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올봄에는 '희망제작소(<http://www.makehope.org>)'란 민간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 하나 하나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연구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리는 일상생활과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

한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은 희망을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믿는 박원순 총괄 상임이사님.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지만 본인은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박원순 총괄 상임이사님입니다.

8월31일날 열린 시상식 후에 간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막사이사이상은 본인에게 수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수 많은 풀뿌리단체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에게 수여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또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뛰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5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 희망가게 10호점 잔치



가난한 어머니들을 위한 자립매장, 희망가게 10호점 '느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창업하신 희망가게 각 호점 대표이신 어머니들께서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과 그로인한 생계의 어

려움,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어머니들을 위해 지원되는 창업지원 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의 설립자셨던 서성환회장님의 유산기부로 조성된 '아름다운세상 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소액무담보 대출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희망가게는 매월 소액으로 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머니들이 반환하신 자금만으로도 한 가게를 지원할 정도로 성장한 이 사업에 최근 노벨 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들의 희망에 찬사와 노력을 보내기 위해 희망가게 어머니들의 앞치마를 입고 사진촬영에 임해준,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어머니들이 성공을 통해 '신용'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도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난을 자력으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희망가게가 우리 사회 수 많은 여성가장 어머니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6 뉴욕 아름다운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뉴욕 동포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모아진 기부금으로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뉴욕아름다운재단이 뉴욕 맨해튼 존 첼시 갤러리에서 2006년 4월 8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2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창립식에서 한국 아름다운재단 박상중 이사장, 박원순 총괄상임이사가 감사의 인사말을 했으며, 오준 유엔차석대사, 이경로 뉴욕한인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박상중 이사장님은 “북가주에 이어 뉴욕에 미주 두번째로 아름다운재단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눔의 문화가 동포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총괄상임이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640만명을 넘는 재외동포들이 나눔의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아름다운재단은 동포사회에서 활발한 1% 나눔 모금활동을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모아진 기부금을 한인동포사회 및 미주사회의 다른 여러 소외된 계층에게 지원하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배분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7 콩반쪽도 나누는 미담 잡지 '콩반쪽' 한살됐어요

2006년 3월 우리의 미담잡지 콩반쪽이가 한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750여부의 정기구독자가 생긴 우리의 콩반쪽. 우리사회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글을 기부해주시는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콩반쪽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8 세 번째 아름다운콘서트

세 번째 아름다운콘서트 "아름다운변화@1%나눔"이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콘서트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이은미, 빅마마, 이한철 등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는 뮤지션들이 출연하며,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이기도 한 박경림씨가 MC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또한 콘서트 부대행사로 나눔장터가 열려 기부자들의 기부물품과 (주)에스퍼슨스에서 기부한 캐주얼브랜드 마루



의 T셔츠 현장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눔장터의 판매수익금은 '홀로사는 노인' 기금으로 적립되어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연도중 봄여름가을겨울과 박경림씨에 의해 진행된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을 나누어보고자 마련한 포켓기부 이벤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한 때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동전 찰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포켓 기부된 돈만 170만원이 모였습니다.

나눔은 행복한 것이라는 것, 함께 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9 나눔의 200승

2002년 9월, 프로야구 통산 최다승인 147승의 기록을 세우던 날 추가 1승 때마다 송진우선수는 50만원씩을 기부하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 송진우 선수의 기부 취지에 공감해 한화 이글스 구단이 50만원씩을 추가로 기부하여 송진우 기금의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송진우 선수는 혹시 본인이 많은 승수를 쌓지 못할까 승수와 상관없이

매년 1,000만원씩 꾸준히 '송진우기금'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현재, 송진우기금 취지에 함께하는 1%기부자 여러분들도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9월 송진우 선수의 200승 기념을 축하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과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송진우기금'은 청각장애인 야구부인 충주성심학교에 두 차례 동계 전지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활동이 갖는 소중한 의미를 많은 이들에게 환기 시켰습니다. 또한, 이 기금을 통해 21명의 장애아동에게 의수·의지를 지원하여 성장에 따라 보조기구를 맞춰야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200승의 기록도 감동적이지만 200승을 일궈낸 시간만큼 나눔에 충실했던 투수 늘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과 나눔을 실천한 따뜻한 사람 송진우로서 이 날의 축하와 감사는 더욱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송진우 선수의 200승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눔의 200승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10 기빙코리아 2006, 나눔의 세대를 키운다



올해 11월 아름다운재단은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6”을 개최하고 유한 김벌리 기빙인덱스 ‘2005 한국인의 기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격년으로 개인기부지수와 기업사회공헌지수를 발표하는 이번 조사에서 국민 1인당 연 평균 기부액은 70,305원이며, 2003년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빙인덱스 발표 및 토론후에는 ‘나눔의 세대를 키운다: 나눔교육’을 주제로 미국의 나눔교육 전문가 캐서린 폴크,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등의 연구 발표와 심포지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시작한 이래 나눔교육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부지수에서 보여지듯이 나눔의 액수가 증대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사회 더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기금 소개

영역	기금명	지원내용
기획	1%기금	지역 풀뿌리단체와 NGO의 공익적 활동 지원
	나눔의복덕방기금	지원이 필요한 곳과 지원하고자 하는 곳 중개
	멀치한상자기금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사람들' 시상
	SOS기금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한시적 긴급 모금
	해피빈기금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을 통한 공익단체 지원
	해피빈서비스사업기금	공익단체 지원을 위한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의 개발 및 운영
	의인가금	공익과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의인 발굴 및 육성
	소금창고기금	정의를 위한 행동을 실천한 공익제보자 발굴
	심신활동가기금	지속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한 활동가 및 단체 발굴, 시상
	동불기금	환경미화원과 소방공무원의 복지프로그램 지원
	내일을위한기금	공익단체 활동가의 교육과 재충전 지원
	공익변호사기금	공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 지원
	공익출판기금	공익관련 서적의 저술 및 출판 지원
	국제NGO연대기금	시민단체의 국제연대활동 지원
	더불어숲기금	국제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지원
	빛한줄기희망기금	저소득 단전가구 전기료 지원
	신한의인후원기금	공익과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의인 발굴 및 육성
	아우디파르트기금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마중물기금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공익제보자기금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기금
	KB국민은행희망기금	지역풀뿌리단체와 공익활동 지원
	우토로살리기희망기금	일제강제동원 조선인 마을 우토로 지원
	햇살고운집만들기기금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KT풀뿌리단체정보화지원기금	공익단체의 정보화지원	
아동, 청소년	길위의 희망찾기기금	소외아동, 청소년의 여행 지원
	하나투어함께가는희망여행기금	소외아동, 청소년의 여행 지원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	자발적인 청소년 사회문화운동 지원
	오필승코리아기금	소외아동과 청소년의 축구활동 지원
	술기금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한술교육신기한나라만들기기금	공부방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소원우체통기금	소외아동의 소원 이루기 지원

아동, 청소년	푸른세상을여는기금	소외아동, 청소년의 여행, 시설의 하늘정원 지원	
	신한저주금용회사가기금	소외청소년 여행지원	
	샌터파랑새기금	소외아동청소년 지원	
	행복보금자리기금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휴머스기금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KTF BIG지기가기금	소외아동 및 청소년 IT 지원	
교육	징검다리기금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꿈틀기금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등록금 및 체납등록금 지원	
	렉스스꿈더하기기금	저소득 고등학생의 등록금과 학업보조금 지원	
	아름드리기금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특기 교육 지원	
	EG기금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의 교육 지원	
	메가스터디기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등록금 지원	
	김군자할머니기금	보육시설퇴소, 소년소녀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로레알코리아기금	보육시설퇴소, 소년소녀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	농어민 저소득가정의 장학 지원	
	하라복지재단기금	소외아동의 특기교육, 정서안정 프로그램 지원	
	함께하는기쁨기금	소외아동의 특기교육, 정서안정 프로그램 지원	
	신성아인저니얼기금	보육시설 퇴소, 소년소녀가정의 아공계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덕테크노밸리장학기금	대전지역 출신의 아공계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론스타푸른별기금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의 교육 및 학업보조금 지원	
	현대모비스기금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현대천사랑기금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주경야독기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등록금 지원	
	녹색꿈나무기금	환경단체실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	탁아기금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보육 지원
		당신의햇살기금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건강권 확보 지원
LG 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건강권 확보 지원	
아름다운세상기금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창업 지원	
아침햇살기금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미용기술교육과 관련 창업 지원	
장애	송진우기금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행복한동행기금	장애인독립생활 및 문화활동지원	
	희망네트워크기금	장애인독립생활 및 문화활동지원	
	엄홍길의길사랑기금	장애인 문화활동지원	
	세피양 행복만들기기금	중증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 보조기구 지원 사업	
	선희샘물기금	저소득계층 개인 수술 지원	

장애	SKT아름다운통화기금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보톡스 주사 지원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놀이터 지원
노인	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은빛겨자씨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HHC사랑나눔기금	저소득 치매 노인 가구의 생계보조금 지원
	그랜드테이블협회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마이너스건강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의료	건강한이세상기금	저소득 계층 아동 및 노인 치과 진료 지원
	교보생명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저소득 계층 미숙아 치료비 지원
문화	행복한힘표기금	문화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
	꿈꾸는나무기금	소외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체험 지원
	혼지만질살문무순재민겨기금	소외계층 도서보내기 사업 지원
	성도지엘삼더기금	문화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
	유향숙의성기금	신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연구사업	연꽃기금	상속문화 확산 지원
	기부문화연구소기금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소 운영비
	유한킴벌리기금	기부문화지수(Giving Index)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를 위한 기금
	류우종아카이브기금	기부문화관련 연구사업 지원
재해구호	E-아름다운기금	재해발생시 구호사업 지원
기타	행복한동지기금	유기동물보호단체 지원
	이한태기금	소년소녀가장의 주거안정 지원
	희망제작소기금	민간연구소 희망제작소 지원
	아름다운에프엔기금	지원영역을 조정중인 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아름다운팔찌기금	
기금의전당	교보생명희망장학금	사업이 종료된 기금들
	도움넷기금	
	우리은행기금	
	롯데리아기금	
	박고태기금	
	청년동지기금	
	최달석목사님을추모하는기금	

2006 기금별 모금액, 배분액, 잔액

2005년 11월 ~ 2006년 10월

영역	기금	기부금수입	배분지원	기금잔액	비고
기획	동별기금	53,022,070		278,631,238	
	빛한줄기나눔기금	230,784,920	253,636,840	151,126,926	
	더불어숲기금	61,830,520	32,040,000	153,720,997	
	공약번호사기금	628,574,265	259,606,843	578,238,830	
	공약제보자기금			125,057	
	공약출판기금	3,291,192		13,477,347	
	국제INGO연대기금	28,809,690	28,630,500	24,737,312	
	내일을위한기금	24,153,870	54,974,000	960,209,443	
	마중물기금	50,000,000		45,053,537	
	멀치한상자기금			1,099,656	
	소금참고기금	10,642,000	3,000,000	19,472,468	
	신한의원후원기금	63,000,000	60,000,000	59,850,000	
	심산활동가기금	1,570,000	3,000,000	26,907,839	
	의민기금	16,247,740	8,228,120	208,246,773	
	1%기금	1,561,598,584	650,404,436	4,094,274,272	
	아우디파트로기금	38,875,000		35,019,622	
	해피빈기금	437,022,496	716,748,028	257,949,161	
	해피빈서비스사업기금	527,479,361	438,216,651	62,422,508	
	KB국민은행희망기금	100,000,000		90,582,958	
	우토로살리기희망기금	109,220,619	359,408	472,099,898	
	햇살고운집만들기기금			72,986	
	KT물뿌리단체정보화지원기금			10,392,599	
SOS기금	52,210,891	23,133,940	94,869,933		
나눔복덕방기금	416,231,300	410,657,066	124,097,942		
아동, 청소년	길위의희망찾기	142,594,603	56,079,070	283,501,844	
	샌터파랑새기금	16,523,590		5,008,581	
	소원우체통기금	58,928,398	50,319,709	148,192,800	
	솔기금	256,441,839	137,725,741	931,073,148	
	신한지주금융회사기금		5,430,350	334,169,859	
	신기한나라만들기기금	65,799,699	18,547,393	109,283,080	

아동, 청소년	오필승코리아기금	323,660,000	266,397,286	128,584,176		
	푸른세상을여는기금	17,130,300	2,590,000	33,307,881		
	한국의대니사만들기기금	12,679,245	(2,062,656)	45,623,032	사업연기로지원단체에서환급	
	함께가는희망여행기금	34,154,589	29,930,410	1,708,559		
	행복보금자리기금	35,000,000		31,500,000		
	휴머스기금	22,951,511		60,846,854		
	KTF Big지기금	103,447,800	105,176,384	31,557,893		
교육	김군자할머니기금	109,176,911	53,690,870	163,200,381		
	꿈틀기금	2,672,240	21,145,200	79,468,282		
	대덕테크로벨리기금	300,455,000	12,000,000	959,287,423		
	렉서스꿈더하기기금	100,000,000	89,000,000	48,076,572		
	론스타푸른별기금	174,162,474	51,200,000	279,967,489		
	메가스타디기금	443,300	11,943,000	7,245,607		
	아름드리기금	40,712,000	15,300,000	315,194,278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	79,916,324	18,000,000	54,010,262		
	주경아독기금	33,860,200	20,250,500	156,205,391		
	징검다리기금	85,104,136	39,700,000	89,805,484		
	천사랑기금	120,000	32,637,400	36,316,475		
	한길기금	38,147,740	27,194,100	37,860,493		
	현대모비스기금	105,117,888	87,100,000	111,251,658		
	EG기금	20,641,500	10,000,000	75,429,485		
	로레알코리아기금	-10,041,911			김군자할머니기금으로통합	
	하라복지재단기금	204,254,603	47,442,650	1,542,594,127		
	함께하는기쁨기금	16,618,281		14,981,373		
	녹색꿈나무기금	7,205,002		36,146,858		
	여성	당신의햇살기금	196,351,257	(147,320)	528,667,107	
		아름다운세상기금	43,776,265	237,634,778	5,310,423,995	
탁이기금		19,724,808		96,748,245		
이철혜어커키기금		5,811,000	5,200,000	12,154,814		
LG생활건강 행복미소가기금		155,788,694	35,865,431	198,655,605		
장애	엄홍길의 길사랑기금	117,000	9,846,830	41,706,943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	111,398,774		120,610,154		
	선화생물기금	42,686,500		109,758,618		
	세피양행복만들기기금	27,908,530		35,310,934		
	송진우기금	49,254,830		136,794,038		

장애	행복한동행기금	60,768,013	18,316,980	78,556,141	
	희망네트워크기금	100,000	30,000,000	105,737,440	
	SKT기금	72,566,053	45,827,354	224,984,512	
노인	그랜드테이블협회기금	13,117,000		11,805,300	
	마이너스건강기금	32,436,850	20,000,000	52,691,517	
	은빛겨저씨기금	137,080,610	51,273,654	245,102,931	
	홀로사는노인자원기금	219,625,258	53,677,820	369,009,650	
	HHC사랑나눔기금	18,444,970	19,800,000	39,008,027	
의료	건강한이세상기금	46,992,710	30,000,000	73,312,265	
	교보생명미국아자원기금	697,853,518	348,490,034	659,691,140	
문화	꿈꾸는나무기금	67,185,220	292,780	155,752,358	
	섬기금			9,511,303	
	성도지열심더기금	48,095,600		43,337,538	
	행복한심포기금	54,999,580	1,704,120	137,660,110	
	혼자만잘살면무슨재민겨기금	61,380,863	74,490,525	388,745,631	
연구	아카이브기금	15,203,381	12,932,444	79,611,003	
	연구소기금	32,654,830	30,200,159	149,063,275	
	연꽃기금	150,000		83,388,275	
	유한킴벌리기금	-18,072,140			연구소기금으로통합
재해구호	E-아름다운기금	8,835,100	229,966,467	706,534,810	
기타	이한테기금	7,000,000		47,848,290	
	행복한동지기금	11,851,100		35,717,873	
	희망제작소기금	999,633,900	985,876,791	14,045,130	שללמנועזתתגיתא
	아름다운에프엔기금	86,050,002		120,318,507	
	아름다운영화인기금	13,165,940		36,736,214	
	아름다운팔찌기금	148,959,260		202,548,086	
기금전당	교보생명희망장학금기금	520,000		18,000,646	
	도움넷기금	20,000		7,172,130	
	우리은행기금			725,532	
	롯데리아기금				지원후기금소멸
	빅오테기금				지원후기금소멸
	청년동지기금		1,121,276	14,358	협력사업단체로 이관
	최달석목사님을추모하는기금	619,000		979,497	
현물	현물기부및지원	567,769,320	557,767,770	163,862,550	
합계		10,870,265,396	6,949,511,132	24,766,381,139	

한 해를 보내며

저희는 한 해 사업을 끝낼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시민과 공익을 잇는 중개자로서 충실했는지.

이제 여섯 살 아름다운재단은 여전히 걸음마 중입니다.
저희는 우리세대는 물론 다음세대를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뛰어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다음세대에는 아름다운재단이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의 수 많은 기부자님들이
더욱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소중한 1%를 나누어 주신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2006 아름다운재단 사업 보고서
나 능 가 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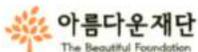
발행일 _ 2006년 12월 5일

발행인 _ 박상중

편집인 _ 윤정숙

기획 _ 아름다운재단 간사들

디자인 _ 조완철



주소 _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호

전화 _ 02-766-1004 전송 _ 02-730-1243

웹사이트 _ www.beautifulfund.org

이메일 _ give@beautifulfund.org

